Kullója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 호 2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2 호 (171)

1960년 2월 15일

차 례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오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향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 벅찬 현실 속에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긴절한 요구이다.

이 요구를 관철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에서 우리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며 혁명적 군중을 단결시키며, 교양하는 군중 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였다.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체득하고 실천함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그 교시의 중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체계로 발취하여 수록한다.

1,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 위하여,

2,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그들을 부단히 교양하기 위하여,

3,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1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군중 관점의 기본 내용과 그를 확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전체 근로 인민을 우리 혁명의 위대한 과업 완수에로 인도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중과 같이 호흡하며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중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 투쟁에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자기의 당적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1955, 4, 1. 《당 및 정권 기관 내 일부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

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려면 인민 자신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인민을 단결시키며 인민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매개 일'군들이 항상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군중을 옳게 발동시키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58, 3, 1. 《내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 군중 관점이란 무엇인가? 혁명적 군중 관점은 인민 대중과의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인민 대중의 력량을 믿고 군중 속에 들어 가고 군중을 위해서 복무하고 군중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고 군중이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투쟁으로써 견지하고 관철케 하는 관점이다.

우리 자체가 혁명하는 것은 군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인민 대중을 온갖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이 자유스럽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혼자서는 실현할 수 없고 인민 대중을 동원함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며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조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 들어 갈 줄 알고 군중과 담화할 줄 알고 군중과 고락을 같이 할 줄 알고 군중에게서 배울 줄 알고 군중을 옳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한다.

인민 대중에 대한 이와 같은 맑스주의적 관점과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당 일'군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1958, 8, 18. 중앙 당 학교 3년제반 제 1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

《당원들은 혁명적 관점과 군중 관점을 소유하여야 한다.

로동당원이 된 사람은 그가 지도적 직위에서 일하는 자나 또는 일반 당원이거나를 막론하고 자기 집 개인 일이나 하고 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지도하면서 혁명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 사업을 하자면 어떠한 작풍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관료주의 사업 작풍이 아니라 혁명적 군중적 사업 작풍을 가져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수립되고 그의 집행 대책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 여부는 당원들의 옳은 혁명적 관점과 군중적 사업 작풍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우리 당원들이 혁명적 관점과 군중적 작풍을 소유함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게 군중 속에 침투될 수 없으며 사업에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

혁명가로서 혁명에 해로운 일은 조금치도 허용할 수 없으며 오직 혁명의 리익에 복종하며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혁명적 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혁명을 위하여서는 군중 관점이 필요하다. 혁명 사업은 로동당원들이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레닌은 당원만을 혁명 투쟁에 내세우는 것은 가장 우둔하고 미련한 일이라고 하였다. 혁명을 하자면 당 주위에 군중을 집결시켜야 하며 그 군중을 끌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왜냐 하면 적을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큰 대중의 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우리는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 사업을 한다. 이렇다고 하면 혁명 관점과 군중 관점은 호상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군중 관점은 혁명 관점이며 혁명 관점은 군중 관점이며 혁명적 사업 작풍은 군중적 사업 작풍이며 군중적 사업 작풍은 혁명적 사업 작풍이다…

…

우리 당원들에게는 이러한 혁명적 관점과 군중적 사업 작풍이 부족하다. 일부 당원들은 말로써는 혁명을 하자고 하면서도 실지 행동에서는 혁명 사업에 해로운 일을 간혹 한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다.

일반 당원들도 물론 그렇거니와 특히는 당 일'군들과 인민 위원회 일'군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관점과 군중적 사업 작풍의 확립은 더욱 중요하다》(1956, 2, 5. 평남 개천군 당 대표회에서 한 연설).

《동무들이 교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군중 관점과 혁명 관점 문제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 군중 관점이 곧 혁명 관점이다.…

군중 관점에 서지 않는다면 좋은 것을 내고도 인민의 호감을 사지 못하며 인민들이 우리를 따라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법령도 결정도 다 좋다. 그러나 그의 집행 과정에서 군중 관점에 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누구든지 군중 관점에 서지 않는 사람은 혁명을 안 하려는 사람이라고 보겠다.

군중 관점도 다 당성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당성 단련이 중요하다. 당성 단련이 군중 관점에 서게 하는 것이다》(1955, 12, 28. 당 선전 선동 일'군들과의 담화 속기록 요지).

《우리 당은 혁명적 대중의 리익을 위한 당인 것만큼 매개 당원들의 당성은 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것으로써 표현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 사업의 기본 출발점으로 되는 것이다》(1955, 4, 1. 《당 및 정권 기관 내 일부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한 모범을 항일 빨찌산이 이룩한 혁명 전통에서 찾으며,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그 전통이 계승 발전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항일 빨찌산은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지주,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 정신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

당시 빨찌산은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가 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였으며 인민을 조직 동원하는 조직자가 되였다.…

항일 빨찌산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았기 때문에 주권이 없이도 유격 근거지에 의거하여 15 여 성상을 싸웠다. 이것은 유격대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1958, 2, 8. 《조선 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왜 항일 빨찌산이 오래 살아 있었는가? 왜 일본놈들이 우리를 토벌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였는가? 문제는 군중 관점이 옳았기 때문이였다. 만약 군중 관점이 옳지 못하였다면 빨찌산들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부상 당해서 농촌들에 들어 가면 농민들은 마치 친자식과도 같이 돌봐 주고 자기네가 먹지 못하면서도 겨울에 쌀을 지어다 주었다. 심지어는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 부락의 토성 안에서까지 먹을 것을 토성 밖으로 넘겨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군중을 옹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1955, 12, 28. 당 선전 선동 일'군들과의 담화 속기록 요지).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는 우리 빨찌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빨찌산은 그와 같이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15 여 성상이나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었으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1958, 5, 10. 혜산시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 당 규약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광범한 인민 대중이 왜 우리 당 주위에 집결되는가? 그것은 우리 당이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기 때문이다.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광범한 근로 대중과 함께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 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그들과 같이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이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과 같이 단결되여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벌써 우리 당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인민의 리익과 그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최저 한도의 의무이다. 혁명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의 초보적이며 기본적인 임무로 되고 있는 것이다》(1958, 4, 29. 《전국 사법, 검찰 부문 일'군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인민들과 같이 살며 인민들의 리익을 자기의 리익으로 알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온갖 정책들을 세우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는 정치 로선을 내세우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명확한 기본적인 정치 로선을 첫날부터 가지였으며 매개 계단마다 정확한 투쟁 과업들을 내세워 전 당을 중앙의 정치 로선 우에 튼튼히 서게 하며 그를 철저히 집행케 한 결과 위대한 승리를 가져 오게 할 수 있었고 또한 당 자체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게 되였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1권, 452, 459페지).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혁명의 동력과 로동자, 농민의 힘의 위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은 소수 혁명가들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중을 발동시켜 그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동력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단결된 북반부 인민과 남반부의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미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 계급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민족 자본가들까지도 반제, 반봉건 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로동자들은 우리와 혁명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이다. 오늘 우리 제도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없다. 로동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혁명 동지이며 혁명 전선에서 같이 싸우는 전사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 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우리 로동 계급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나가기만 하면 못 할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을 발동시키는 문제이다.…

로동자들이 동원만 되면 생각조차 못했던 창발성이 다 쏟아져 나온다》(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로동자와 농민의 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 세상에 로동자, 농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륜선도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로동자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실생활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사실이 그렇지 않는가?

공장, 기업소도 로동자들에 의하여 건설되였으며 생산에서의 혁신도 로동자들이 일으켰으며 벼 랭상모도 농민들이 연구해낸 것이다》(1958, 9, 16.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혁명 동력의 구성 요소로서의 인테리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소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인테리와는 달리 과거 우리 나라 인테리는 식민지적 민족적 압박을 받은 인테리라는 것이다.…

…

우리가 처음에 당을 건설하면서 조선 혁명에서 인테리와 합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 벌써 이것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조선의 인테리가 제국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봉건 세력도 반대하는 혁명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과 합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면 그 인테리들이 우리가 공산주의자인 줄을 모르고 우리와 합작했겠는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혁명만 수행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로는 나가지 않으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는가?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고 공산주의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우리와 합작했는가?

우리 인테리들은 비록 과거에는 제국주의자들과 자산 계급에게 복무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 인민과 로동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며 또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합작한 것이다. …

…

특히 우리 당 창건 당시에 인테리들을 광범히 포섭한다는 우리들의 구호가 인테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을 혁명에로 발동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그리하여 우리 당의 구성 성분에는 로동자, 농민 뿐만 아니라 진보적 인테리까지도 포함되였다. 우리 당의 마크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

과거 인테리들은 비록 유산 계급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 동안 본래의 경제 토대와 인연을 끊었고 해방 후 근 15년 동안 우리 당의 교양을 받아왔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싸웠다.

…

인테리가 근 15년 동안이나 자기의 본래의 경제 토대를 떠나 우리 당의 지도하에 혁명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교양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미 혁명적 인테리, 로동 계급의 인테리로 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는 항상 인테리 특히 일제의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 복무한 인테리들에 대하여서까지도 옳은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로동당을 창건하던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낫과 마치 그리고 펜으로 묶어 있는 우리 당 마크는 당의 성격을 잘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이 농민과 근로 인테리와 굳게 단결되고 있다는 표징이다》(1956, 4, 7. 《평북도 당 대표회에서 진술한 연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더욱 발휘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았지만 실상 유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째서 유식하다고 말하는가? 조선 사람들의 지식은 마치 깨끗한 백지에 써 놓은 글과 같이 분명하여 흐리멍텅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있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욕망이 또한 남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옷은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빨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1958, 11, 20.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

하여 진군하는 이 기세는 참으로 조선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우리의 이 기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주위에 전체 인민이 한몸같이 뭉쳐 당의 호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헤치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오늘 조선 사람이 다 천리마를 타고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혼자서 애를 써서 안 되는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서 혁신을 일으키면 거기에 참가한 사람은 다 혁신자이다. 여러 사람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집단적으로 하면 일이 더 훙겹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집단적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영웅적 업적을 쌓으며 창발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며 그러한 혁신자의 대렬이 더 확대되도록 일을 조직하여야 한다》(1958, 9, 16.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우리들은 지금 인민 대중의 이 고조된 혁명적 기세를 옳게 조직 동원하며 그들의 무진장한 력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더욱더 앙양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혁명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전진하는 이 위대한 력량이 잠시라도 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전진의 방향을 가리켜 주며 이끌어 주며 계속 혁명에서 새로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래야만이 우리 당이 능히 천리마를 타고 나가는 군중을 지도할 수 있는 위력 있는 당이 될 수 있다》(1958, 6, 23. 《평북도 지도 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우리는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좋은 인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 일'군들이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인민을 잘 조직 동원한다면 우리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은 아무 의심도 없다》(1957, 8, 25. 《송도 정치 경제 대학 제 1회 졸업식에서 진술한 연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에 립각한 인민적 사업 작풍과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경험이 보이여 주는 바와 같이 인민 대중에 대한 당원들의 옳은 태도를 배양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인 것만큼 하나의 지령이나 결정서로써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 단체들에서 반관료주의 투쟁을 시기적 깜빠니야로 대치시켰으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라〉고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고 당원들을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양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일부 당원들은 아직 자기가 인민 대중의 충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각오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의 리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리익보다도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 단체들에서는 대중에 대한 그들의 태도, 대중과의 관계, 대중 속에서의 그들의 신망 여부 등이 당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많은 부분이 아직 군중 공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적으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단련됨이 미약하며 군중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실제 정형을 고려하면서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군중 공작을 일상적으로 주의 깊게 지도 방조하여야 하며 군중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일체 결함들을 엄격히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을 향하여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하며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에 의거할 줄 알게 하며 일상 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우리 인민적 례절, 풍습들을 존중히 하며 그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우리 당은 권력 기관이 아니다. 우리 당이 어떤 권력 기관과 같은 행세를 하고 당 세도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도 많이 론의되였다. 우리는 당 관료와 당 세도 쓰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당이 군중과 리탈될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당을 군중들이 무서워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 기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군중들과 하급 당원들 속에 들어 가서 그들에게 해설하여 주며 그들의 심정을 연구하며 그들을 이끌고 목적 달성의 길로 나아가는 작풍을 세워야 한다.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以身作則)하여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야 하며 그들이 모른다고 시비하며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접근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군중의 가장 친근한 벗이 되도록 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

야 한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1권, 466~467페지).

《…동무들은 인민 대중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의 학생이 되며 충복이 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늘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군중들 한테서 그들의 무진장한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인민 대중의 지혜와 힘을 믿고 그들의 지혜와 힘을 조직하며 싸울 줄 아는 전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진리 즉 인민 대중을 위하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 대중의 머리 우에 올라 서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온갖 관료주의적 경향과 무자비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동무들은 인민 대중과 상의할 줄 알고 단결할 줄 알며 인민 대중을 포옹할 줄 아는 관대한 정치가가 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인민 대중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포옹하며 그들과 단결할 줄 모른다면 일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 당이 광범한 군중을 우리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로동당으로 전변된 이후에 있어서 이 점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농민, 더 많은 지식 분자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련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의 아량은 커야 하고 우리들의 태도는 관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어느 때보다도 군중들과 친밀하고 그들을 능히 우리의 주위에 집결시킬 줄 아는 간부와 당원들을 요구하고 있다》(1946, 8, 5. 중앙 당 학교 제1회 졸업식에서 한 연설).

《우리가 말하는 군중은 우리를 따라 오며 우리와 동맹하는 사람들, 우리가 응당 그의 리익을 옹호하여 주어야 할 그런 군중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무 기관 일'군이나 군대 일'군이나 당 일'군, 행정 일'군, 사회 단체 일'군은 누구를 물론하고 군중 관점에서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우리와 같이 동맹하려 하며 우리 편에서 싸울 수 있는 군중을 애호해 주자는 것이다》(1955, 12, 28. 당 선전 선동 일'군들과의 담화 속기록 요지).

《우리 일'군들은 매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할 것 없이 혁명에

리로운가 해로운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군중이 좋아할 것인가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 혁명과 군중에게 리로운 것은 무엇이고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여 여러 번 생각한 다음에 결심을 채택하여야 한다.

조선 속담에 〈열 번 재이고 가새질은 한 번 하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가새질을 잘못하면 좋은 옷감이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사업할 때 구체적인 연구도 없이 자기 호기심에 의하여 혁명에 리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상관 없이 막 해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일을 군중들의 리익에 위반되게 한다. 근로 대중의 리익에 위반되는 혁명을 하여 무엇하는가?

때문에 우리 당원들에게 혁명적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 앞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1956, 2, 5. 평남 개천군 당 대표회에서 한 연설).

《우리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당 일'군들은 겸손하고 소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해야 대중과 한덩어리로 될 수 있고 군중 관점이 확립된 일'군으로 될 수 있다》(1958, 8, 18. 중앙 당 학교 3년제반 제 1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

《당 일'군들은 당 정책을 잘 연구하고 군중을 잘 동원하고 사업을 잘 조직할 줄 아는 조직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 일'군들과 협의할 맛도 있고 물어 볼 맛도 있고 찾아 올 맛도 있을 것이다.

…

…동무들이 당 정책을 잘 연구하여 그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사업 방침을 잘 세우고 군중을 동원하며 군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한다면 군중은 자연히 동무들을 따를 것이며 존경할 것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당 일'군은 사업에 있어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고 가르쳐 주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란 없다. 잘못할 때는 늘 일깨워 주고 뒤를 돌보아 주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없다.

그러나 우리 당 단체들은 일'군들을 도와 주고 교양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 당 일'군들은 당원 대중을 항상 사랑해 주고 가르쳐 주는 어머니가 되고 사업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인민 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의존하여 사업할 줄 알며 일상 사업에 있어서 인민들의 리해와 결부시킬 줄 알며 인민들을 옳게 동원할 줄 알며 인민들을 교양할 줄 알며 인민들에게서 배울 줄 알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952, 2, 1. 《현 계단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선집, 4권, 66～67페지).

《우리가 산으로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하면 왜놈 하나라도 더 잡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중을 더 많이 얻겠는가, 군중에게 영향을 어떻게 더 많이 주겠는가 하는 것을 매 개인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곤난이든지 이겨 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동무들이 사업을 이악하게 내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 특히 도, 시, 군 간부들이 당 정책을 실정에 맞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일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눅'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쌀, 고기와 발고랑 하나라도 더 얻어 내겠는가 하고 밤'잠 안 자고 기를 쓰며 일해야 정신이 들고 성수가 난다.

우리 당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자고 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백만의 당원, 자기의 인민, 자기의 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몇 십만의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 이악하게 일을 한다면 공산주의 사회에까지라도 인차 쑥 올라 가겠는데 아직 일을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이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발동한다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고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

매개 일'군들이 당 정책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혁명이란 간고한 투쟁을 요구한다. 악전 고투를 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1959, 11, 30.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한 결론 속기록 요지).

《…당 일'군들에게는 공명이 필요 없다. 혁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 앞에 잘 복무하며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민에게 확신시키며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것은 우리 당 일'군들이 훈장 받는 것보다도 더 좋고 신문에 나는 것보다도 더 좋고 칭찬 받는 것보다도 더 좋다.

혁명에 리익을 주고 인민이 알아 주면 된다.… 실속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거저 한 가지 일을 만들어 공명이나 내려고 하거나 혁명의 리익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하여 허물을 감추는 것은

혁명가의 품성이 아니다.

공명주의는 사업을 망치는 소부르죠아 사상의 표현이다. 공명주의를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 당 일'군들은 공명으로써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 전사의 모범을 뵈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는 기수로서 모범을 뵈여야 하며 사생활에 있어서는 검박하고 겸손하고 리기주의가 없고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써 모범을 뵈여야 한다. 내 생각에는 동무들이 이와 같이 사업하고 행동한다면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다음 호에 계속—

(위 찬길 편집)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와 통제

김 영 남

맑스—레닌주의 당은 모든 혁명적 활동에서 항상 자기 대렬을 공고히 하면서 대중적 조직들을 통하여 수백만 대중을 자기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그들을 자기의 로선과 정책 실현에로 조직 동원한다.

오늘 우리의 국가 기관 및 사회 단체, 경제, 과학, 문화 기관들은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 있는 포괄적인 조직으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 있는 당의 인전대들이며 당의 방조자들이다.

따라서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이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의 성과적인 활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들이 없이는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누가 우리 나라의 혁명과 모든 정책에 대한 방침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이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수령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다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전국 사법 검찰 부문 일'군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기관들과 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언제나 당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야만 당 정책은 정확히 관철될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은 모든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변천된 모든 현실과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들에 의하여 설명된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소상품 경리와 자본주의적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다.

그에 기초하여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되고 있으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촉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립각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확성에 의하여 급속한 템포로 장성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복잡하고 긴장된 과업들을 련이어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우에 우리는 남북이 량단되고 남반부에 둥지를 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감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당 단체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당의 의지로 통일되고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 그리고 전체 당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당의 정책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담보로 된다.

때문에 당 단체들은 항상 당 정책 집행 정형과 모든 기관, 단체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근로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중 자신의 력사적 위업이므로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의 발양은 행정적 명령이나 간단한 지시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일부 일'군들과 같이 행정적 방법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덮어 놓고 내려 먹이며 다스리는 방법으로 군중을 대한다면 대중 속에서 당의 지도적 권위를 상실케 하며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과 대중을 멀리하게 된다.

오직 대중 속에서 당 단체들의 조직 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앙양된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견지할 수 없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1959년 8월 28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당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과업의 원만한 수행은 당 기관들의 지도적 역할에 달려 있다. 모든 사업에서 행정 만능의 사상을 버리고 정치 사업을 그에 선행시키도록 모든 기관들과 일'군들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 우리 일'군들의 정치적 각오 정도와 실무적 준비 정도는 당의 요구와는 아직 먼 거리에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근로 대중을 몇 개인의 총명과 지혜만으로써는 조직 지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런 데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 결함들이 반복되며 응당한 자주성과 창발성이 결여되고 모든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모든 기관들과 그 일'군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객관적 요구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객관적 현실은 각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당 단체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지도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더우기 지난 시기 우리의 일부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은 당적 령도와 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행정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달가와 하지 않거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내걸고 당의 지도를 허심하게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일부 인민 경제 부문들에는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가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였으며 당 정책이 정확히 관철되지 못하였다.

주지된 바와 같이 모든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행정 관리 기관들이며 그 일'군들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적 수행은 해당 기관의 행정 기술적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 사업의 선행에 기초한 당 단체들의 당적 지도와 통제를 결합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때문에 당은 항상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옳은 결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변천되는 객관적 현실——우리의 혁명 과업이 더 방대해짐에 따라 그에 상응한 당적 지도 방침과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최근 시기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성 당 위원회들의 통제적 기능을 일층 높일 데 대한 조치가 취하여졌으며 오늘의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경제 지도 체계를 일부 개편할 데 대한 조치가 강구되였다. 또한 금년 1월 15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에는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 근로 단체 등 모든 기관, 단체들은 례외

없이 해당 당 위원회들의 통제 밑에서 사업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당의 이와 같은 현실적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금후 각급 당 단체들의 지도적 기능과 주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데 달려 있다.

집체적 지도의 본질은 당의 모든 활동에서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재능에 의거하여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함에 있다.

집체적 지도를 떠난다면 사업 행정에서 우연성과 일면성을 극복할 수 없다. 때문에 당적 통제는 당 조직의 집체적 통제로 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명백한 해명을 주었는바, 《인민 위원회들은 해당한 도, 시, 군 당 집행 위원회의 통제하에 자기 사업을 해야 하며 공장에서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모든 일이 수행되여야 한다.

공장 내에서 최고 기관은 공장 당 위원회이다.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지배인과 당 위원장이 일하게 된다. 공장 당 위원회에서 경제 사업도 토론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배인은 행정 사업을 집행하고 공장 당 위원장은 당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교시하였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당 위원회들의 임무와 역할을 더욱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며 당적 지도의 방법과 절차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당 위원회와 집행 위원회들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지도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되였으며 일정한 사업 경험과 지도 능력이 있는 일'군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실지 생산에 참가하고 있으며 생산자 대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군들이 인입되여야 한다.

지도 기관을 꾸리는 것은 그의 질적 구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 사업을 통하여 지도 기관 성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지도적 수완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모든 기관, 단체들의 사업 방향을 정확히 주며 그들의 모든 활동이 당의 방침으로부터 리탈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 위원장과 행정 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 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8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으로부터 리탈한 당 일'군들은 왕왕 국가, 경제 사업 지도에서 행정 일'군들을 제쳐 놓고 그를 가로타고 앉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반대로 또 어떤 당 일'군들은 행정 일'군들의 뒤꼬리나 따라 다니거나 행정 사업과 당 사업을 기계적으로 분리시켜 순수 《당 사업》만 한다고 하면서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하여 외면함으로써 당의 경제 정책 집행이 잘못되여도 모르며 행정 일'군들이 해이되고 무책임하여도 방관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 두 경향은 모두다 용납될 수 없는 유해로운 현상으로써 그것은 당의 령도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일'군들의 자유주의를 조장하며 당적 책임성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당적 지도에 불충실한 결과를 빚어내게 한다.

당 위원회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엄밀히 립각하여 모든 기관들의 사업 방침을 세워 주고 그의 실행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력량을 조절 배치하며 분공을 정확히 제때에 주고 실행 정형을 검열 총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 위원회들은 당 상급의 결정만이 아니라 자체 실정으로부터 출발한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도 례외 없이 집체적 토의를 거치며 행정 상급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들에 시달된 중요한 결정 지시들에 대하여도 당 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방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들은 자기 사업을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행정 상급 기관의 결정이나 지시가 해당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잘못되였을 경우에는 당 중앙 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해당한 당 상급 기관에 제기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다고 하여 사소한 문제들까지 당 위원회나 집행 위원회에서 토의할 수는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당 위원회들에서의 사업 방침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엄밀히 립각하여야 하며 항상 자체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체 실정을 모른다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험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 정책이나 자체 실정을 잘 모르고서는 당 정책으로부터의 탈선이나 외곡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당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교양 설복할 힘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당 정책의 본질을 리해하고 해당 부문 실정을 깊이 파악함으로써만 정확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당의 방침은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하며 과업을 위임 받은 일'군들이 자기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되여야 한다.

당 정책에 대한 실행 방침의 수립은 일의 시초에 불과하며 실행에 대한 조직과 검열 총화가 없이는 지상 공론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들과 단체들에 과업이 위임된 다음에는 해당 기관들에서 자기 조직을 그의 실행에로 발동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취해져야 하며 지도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당 결정 실행을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는 그에 대한 검열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당 결정에 대한 당적 검열의 형식과 방법은 단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군중 공작을 통한 검열이다.

김 일성 동지는 《검열하는 데서 그 사업을 지도하는 사람과 담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아래에 내려 가서 당원들과 담화하고 군중들과 담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고 교시하였다.

대중 속에 들어 가지 않고서는 그 결정이 잘 되였는지 못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결정의 집행자들인 기관들과 단체들의 활동 정형을 알 수가 없다.

경험을 보급하고 결함에 대하여 신호하며 시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하부 지도 사업을 통하여 수행된다. 때문에 하부 지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준비 있게 진행하며 지도 사업 총화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당 출판물에는 그 시기의 당의 사업 방향들이 제시되며 경험이 소개되며 결함에 대한 신호가 실린다. 그러므로 《당보는 곧 당의 지시서와도 같다》(김 일성). 그렇기 때문에 매개 일'군들이 당보는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조직 사업들을 하여야 한다.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자면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할 기관들, 그 간부 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아무리 세밀한 방침을 세워 주고 구체적인 분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의 정치 실무적 준비가 제기된 과업의 요구에 수응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문제는 간부를 당적 원칙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선발 배치할 뿐만 아니라 배치된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것이다. 간부들을 교양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상적인 방조를 주지 않다가 그가 과오를 범하면 처벌이나 주는 데 그치는 것은 당 사업 방법과는 인연이 없는 유해로운 행정적 방법이다.

어디까지나 설복의 방법으로 일'군들을 교양하며 당성 단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계급적 각오 정도가 낮은 개별적 일'군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대렬을 꾸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일'군들의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당적 령도를 잘 받을 수 없으며 당 정책 집행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은 론의의 여지가 없다.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매개 당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적극 옹호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혁명적 립장——사상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시켜야 한다.

현 시기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매개 당원들과 일'군들의 혁명가적 자질과 품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군들의 혁명가적 자질이 부족하면 필연코 사업에서 무책임성, 형식주의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당이 목적한 바 제반 사업들의 수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사업에서 주인답지 못하며 인민 앞에 책임지려는 계급적 관점——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한 현상이 종종 발로되고 있다.

마땅히 매개 일'군들은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 그러한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하면 당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며 더 복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일하는 기풍이 수립되여야 한다. 또한 사업에서 거칠고 세밀하지 못하며 하는 일은 적으면서도 공명을 위하여 허풍을 침으로써 우리 사업에 혼란을 주는 유해로운 작풍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항상 사업을 세밀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조직함으로써 그야말로 시계 바늘과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되여야 한다.

당적 령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하여야 할 것은 일부 당 일'군들에게서 발로되는 당 세도이다.

구체적인 지도와 진실한 방조를 주기보다 결함이나 들추어 《추궁》이나 하며 과오가 발생되면 간부들에게 처벌이나 주는 것으로써 끝내려는 작풍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당 일'군의 지도적 권위와 위신은 결코 당 세도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참된 령도력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당 일'군은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군중 속에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며 친근하게 도와 주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당 일'군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정통하여야 하며 문학과 예술도 알아야 하며 기술도 배워야 한다.

모르고서는 남을 지도할 수 없으며 군중이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항상 꾸준히 학습하며 대중 속에 들어 가 배우고 배워 주는 지도자가 되여야 한다.

당적 령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의 퇴치는 전체 당원들이 례외없이 당 사업에 인입되여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는 때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상적인 당적 분공을 통하여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며 실지 사업 행정에서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형식주의적 경향이나 당적 원칙으로부터 떠난 부정적 현상들은 방지될 것이며 당의 전투적 기능과 지도적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개인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최　정　현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들을 이룩하였다. 이 변혁의 행정은 동시에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분야에서의 거대한 전변의 시기로도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경제 건설의 비상히 빠른 속도는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 의식을 증시해 주며 그것은 그들의 고도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나 천리마의 진군도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라고 교시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매일과 같이 새로운 정신—도덕적 풍모가 형성 발전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모두가 낡은 사상 잔재를 이미 청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일부 근로자들 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개인 리기주의가 이러저러하게 발로되면서 우리의 빠른 전진 운동을 저해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낡은 사상 잔재 특히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I

현 시기 개인 리기주의와의 투쟁이 긴절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우선 개인 리기주의가 우리 **혁명 발전**,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에서 심중한 장애물**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혁명은 과거의 모든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모든 착취 관계를 근절하며 온갖 사'적 소유 형태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가 낳은 일체 낡은 사상 잔재도 청산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이 과거의 다른 모든 혁명과 구별되는 심각하고 간고하고 복잡한 그 중요한 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혁명 발전을 장애하는 질곡이 생산 관계의 면에서는 없어졌다. 그러나 낡은 생산 관계를 반영한 낡은 사상 잔재는 이모저모로 우리 사회의 전진을 저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 리기주의는 가장 뿌리가 깊고 집요하다.

개인 리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 개인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착취 계급의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 조국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의 리'속만 채우려고 한다.

혁명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중이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헌신할 때 혁명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하나는 바로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서는 개인을 희생할 줄 알며 자기의 목숨마저 바칠 각오를 가진 렬렬한 혁명가들을 가지

고 있는 데 있다. 목숨으로 혁명을 고수한 항일 빨찌산들, 피로써 조국을 지킨 수 많은 전투 영웅들,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두가 이러한 혁명가로 된 것은 아니다. 아직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청산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몇 푼의 돈과 몇 가마니의 쌀을 위하여 국가와 혁명의 리익에 배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는 우선 국가와 사회 재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국가 및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및 협동적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며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근로자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자기의 소유만을 귀중히 여기던 낡은 사회의 사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개인농 때에는 호미 한 자루, 병아리 한 마리라도 귀중히 여겨 자기의 몸과 같이 알뜰히 거두었다면 오늘 조합의 농기구와 소는 소중히 다루지 않으며 그것이 파괴,분실,페사되여도 자기의 로력 공수와 직접 관계 없는 것이라면 아랑곳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조합 관리 일'군들은 공동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비계급적 행위까지 발로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 리기주의적 태도가 국가와 조합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를 가져 온다는 것을 똑똑히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는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생산 관계는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오직 인민의 공동 로동의 성과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근로자들 가운데는 건달'군, 태공 분자, 로동 규률 위반자들을 비롯하여 자기 사업에 형식적으로 대하며, 열성을 내지 않고 창발성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며 동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집단의 리익, 사회의 리익을 무시한다.

개인 리기주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데서도 표현된다.

우리 농민들은 당의 령도와 로동 계급의 지원하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고 온갖 봉건적 착취로부터 해방되였으며 영예로운 사회주의적 협동 조합원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원조와 배려에 의하여 자기의 협동 경리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개선 향상시켰으며 각종 교육 문화와 의료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시종일관한 방조와 로동 계급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과 관리 간부들은 국가에 대한 임무 수행시에는 나라의 살림살이나 로동 계급의 처지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앞의 리익만을 주로 따짐으로써 페하면 국가의 농산물 수매 사업에 적지 않은 저애를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리기주의는 일부 지도 간부들의 출세주의,공명주의,허풍치기 등 사업 작풍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작풍은 앙양된 대중의 창조적 열성과 적극성을 저애하며 부단히 혁신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 위업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상 모든 사실들은 오늘 우리 혁명 발전이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청산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뿐만 아니다. 개인 리기주의 사상의 극복이 극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조국이 분렬되여 있다는 사정과도 특히 관련된다.

지금 우리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계급적 원쑤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 원쑤들은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 복구에 대한 망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을 방해하려고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부르조아 사상을 침투함으로써 일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사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하며 우리 제도에 대한 불신임을 조장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특히 북반부에서 개인 경리가 소멸된 조건하에서 적들은 오직 일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자기들의 목적 달성에 리용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경험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목전의 리익에 매혹되여 적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서는 반혁명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의 일부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이러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의 침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만일 우리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자만하여 만세만 부르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사상 정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의 락후한 요소들이 적들의 모략에 빠질 수 있다》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원쑤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전체 근로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육성하며 민주 기지를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것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된다.

II

온갖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여 변화되는 것만큼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날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관계가 변화되면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극복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개인 리기주의는 사'적 소유의 경제적 토대를 반영한 사상—의식으로서 이것은 사'적 소유가 발생된 이래의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노예주나 봉건 량반들이나 자본가들은 모두다 전형적인 개인 리기주의자들이였다. 특히 부르조아지는 개인 리기주의를 최고 절정에까지 발전시켰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조아지에 의하여 《… 사람들 사이에는 다만 로골적인 리해관계와 랭혹한 〈현금 계산〉 이외에는 하등의 다른 련관도 남지》 않았고 부르조아지는 모든 것을 《얼음과 같이 차디찬 리기주의적 타산의 물 속에 잠그어 버렸다》(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제 1권 1분책, 조선문 판 33폐지)고 지적하였다.

오랜 세기에 걸쳐 형성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은 하나의 견해와 관습,전통으로 일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집요하게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와 관습은 심지어 우리의 새로운 사회 제도하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뒤떨어진다.

경제적 관계는 물질적 조건 형성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여 급격히 변화되지만 일정한 사상 의식은 자체의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다. 그런만큼 사상 의식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일단 발생된 후에는 관습화되여 공고화되며 완고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물질적 생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과거 사회의 낡은 흔적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였다. 더우기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존재는 아직 전체 근로자들의 의식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리에서 생활한지 얼마 안 되는 협동 조합 농민들에게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더욱 심하게 발로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개인 리기주의를 포함한 낡은 사상 잔재는 일부 로동 계급들에게서도 발로되고 있다. 레닌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프로레타리아 자신 역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초 우에서의 장구한 투쟁 가운데서 재교양되여야 하는바 프로레타리아들은 그 자신의 소부르조아적 편견에서 즉시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써나 또는 성모 마리아의 계시에 의하여 해방되는 것도 아니며 구호와 결의문과 포고로써 해방되는 것도》(전집, 제 31권, 조선문 판, 128페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는 우리 로동 계급의 대렬에 어제'날의 도시 소상인 개인 기업가 및 수공업자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신입 로동자가 허다하다는 사정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개인 리기주의는 집요하다. 때문에 이를 청산한다는 것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며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요구한다. 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인내성 있는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의 약화가 곧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레닌의 이 교시는 근로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의식으로 부단히 교양할 때에라야만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성과 있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실 오늘 맑스—레닌주의 학습과 자체 수양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준비되여 가고 있는 반면에 자체의 사상 의식 수준 제고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낡은 사고 방식, 낡은 행동, 관습들을 이러저러하게 계속 발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 교훈을 심각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여전히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 사상의 성과적인 극복은 오직 근로자들 자신의 주체적 노력과 함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당 단체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산주의 교양은 세계관의 교양이며 정치 교양이며 도덕 교양이다.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앞길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주며 집단주의적 립장에 확고히 서도록 자각시킨다. 말로써는 개인 리기주의가 나쁘다는 것, 사회주의 성원으로서 응당 집단주의적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인 리기주의를 범하는 그러한 현상도 그가 세계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최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학습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뿌리 뽑는 데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인식시키는 것,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배양,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의 교양 등 공산주의 교양의 중요 구성 부분들에 대한 교양 사업과 분리할 수 없다.

례하면 농민들로 하여금 과거에는 지주와 자본가에 의하여 어떻게 착취 받고 압박 받았는가를 다시 심각히 생각케 하고 자각케 한다면 그들은 개인 리기주의를 응당 버려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낄 것이다.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함에 있어서 도덕 교양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 혁명 선렬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을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일 빨찌산들이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항상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직의 리익을 먼저 념려하였고 혁명과 조직의 비밀을 자기 생명

으로 옹호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어 가면서도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라지 않았던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또 매개 일'군들이 이 사상으로 자체를 수양한다면 개인 리기주의가 시급히 극복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개인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실천 투쟁을 떠나서 부르조아 사상을 비판하며 집단주의 원리를 해설하는 방법만으로써는 그를 청산할 수 없다. 새로운 사상 의식 특히 새로운 관습의 형성은 주관적 욕망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 투쟁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례컨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말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사회주의적 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때에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레닌은 사람들은 로동 속에서만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은 사회 재산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집단주의적 정신, 조직성과 규률성, 사회에 대한 의무감과 자각성 등을 배양한다. 특히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경쟁에 광범히 인입시켜 건전한 경쟁심을 계발하는 것은 집단주의 사상을 최고도로 발양시키고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청산하는 중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강조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아직 로동이 생활상 제 1 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며 사회적 생산물도 사람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원칙한 평균주의를 실시한다면 일부 견실치 못한 일'군들 속에서 로동과 사회 재산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자라나며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는 리기주의적 사상이 조장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 원칙의 준수는 근로자들의 성실한 창조적 로동을 장려하고 기생적 생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리기주의적 현상을 근절하며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을 통일시키게 되며 여기에서 매 개인은 자기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결합하는 습성을 점차 배우게 될 것이다.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의 하나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다. 부정적이고 락후한 것은 은폐하고 묵과할 것이 아니라 제때에 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비판이 무디고 사상 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개인 리기주의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비판의 목적은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대하는 데 있는만큼 비판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결함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야 한다.

개인 리기주의와 투쟁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하여, 개인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

집단주의 원칙은 개인의 건전한 리해 관계를 유린하는 현상과는 인연이 없다.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적 원칙이다. 집단주의 원칙은 매개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 보장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이 소유한 개인적인 긍정적 특징들에 대해서는 부단히 발전시키며 개인적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리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경제를 강화하는 사업과 분리할 수 없다. 경제적 토대의 발전은 결국 낡은 사상 잔

재 근절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왜냐 하면 모든 사상 의식의 변화 발전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 발전을 반영하며 그것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영향 받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기계화가 농민들의 낡은 봉건적 의식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철저히 개변시키는 데 그 어떤 역할을 놀고 있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인간 로동이 더욱더 헐한 것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생산물의 풍족이 사람들의 수요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면 시킬수록 로동을 기피하거나 물건에 대하여 리기주의적으로 탐내는 현상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개인 리기주의와의 투쟁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투쟁에서 각급 당 단체들의 지도적 역할을 가일층 높이며 이에 광범한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여 개인 리기주의와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각 기관, 직장, 단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률을 강화하며 일'군들 속에서 항상 전진한 혁명적 기풍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 리기주의의 온갖 발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따라 개인 리기주의가 시급히 극복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완충기 당 농업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오 성 묵

완충기 당 농업 정책의 기본은 우선 《알곡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키면서 채소 생산을 확장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유지 및 공예 작물의 재배와 과수업 및 잠업 등을 더욱 발전》(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서)시키는 것과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혁명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데 있다.

1960년에 알곡은 380만 톤 이상, 육류는 22만 톤 이상, 채소는 266만 4,000톤 이상 각각 생산하여야 한다.

이 과업의 원만한 수행은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 발전을 따라 세우게 함으로써 발전하는 인민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보장하며 제 2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이 과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난 기간 농촌 경리 분야에서 일어난 심각하고도 거대한 변화들을 정확히 타산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빛나게 완성한 성과에 토대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촌에서 당면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농업 협동 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였다.

당은 농업 협동 조합들이 통합된 결과에 조성된 모든 유리성을 적극 발휘시키며 통합된 집단 경리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일련의 조직 경제적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조합이 통합된 후 처음으로 한 지난 1년 간의 농사 경험은 이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확성을 완전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추진시켜 온 우리 당의 정책도 빛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

농업 기술 혁명의 기본 고리인 수리화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1958년 9월 전원 회의 이후 새로 확장된 관개 면적은 37만 7,000정보에 달하였는바 이는 해방 전 관개 총 면적의 3배 이상, 해방 후 9월 전원 회의 전까지의 13년 간에 확장된 면적보다도 3만 2,800정보가 더 많다). 이와 함께 전국 농촌들에는 2만 6,000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중 소 규모 발전소들과 2,800 여키로메터의 송배전망이 신설 확장되여 농촌 전기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급속히 추진되여 왔다. 현재 전국 각지에 있는 89개의 농기계 작업소에는 8,000 여대(15마력으로 환산)의 각종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만대의 련결기와 기타 각종 농기계들이 있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와 함께 각종 선진 영농 방법이 광범히 도입되였고 집약 영농법이 보급됨에 따라 농업 생산 분야에서 기술적 토대가 일층 공고히 되였다. 결과 1958년에 비하여 1959년에 논벼의 정당 수확고는 116.5%로, 밀은 144%로 장성되였으며 공예 작물 총 파종 면적은 198%로, 그 중 아마의 생산량은 180%로, 유지 작물 생산

량은 2.6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채소의 파종 면적은 149%로 장성되였으며 그의 생산량은 43만 톤이나 더 증가되였다.

1959년에 2만 4,000정보의 과수 적지를 새로 개간하였고 과실 생산은 1958년에 비하여 112%로 장성되였다. 또한 6,400정보의 뽕밭 면적이 확장되였고 누에 고치 총 생산량은 1958년에 비하여 138%로 장성되였다.

축산업도 현저히 발전하였는바 1959년 말 가축 두수는 1958년에 비하여 조선소는 107%로, 돼지는 112%로, 면양 및 산양은 128%로, 가금은 142%로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완충기의 당 농업 정책을 관철시키며 우리의 농촌 경리를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 담보로 된다.

그러면 완충기 농업 부문 앞에 나선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심 문제들은 무엇인가?

1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들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을 계속 관철시켜야 한다.

알곡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킴이 없이는 식량 문제도, 농업의 기타 부문의 급속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난 해의 농사 경험을 심중히 총화하고 당의 토지 정책과 로력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는 토지를 기본 생산 수단으로 하는 생산 부문이다. 토지를 떠난 농업은 생각할 수 없으며 토지는 다른 어떤 생산 수단으로도 대용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토지가 제한되여 있기 때문에 각이한 지대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지 적작에 의한 전문화와 식물 배치를 옳게 보장하는 문제와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그의 비옥도를 부단히 높이는 문제가 각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당은 자연을 개조하여 더 많은 경지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토지를 잘 관리하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말고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당의 토지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당의 집약화 농법에 대하여 잘못 리해하고 토지를 무원칙하게 묵이거나 농업 생산 이외의 목적에 람용하며 기본 경지에 알곡을 심을 대신 공예, 유지 작물을 심는 등으로 알곡 파종 면적을 축감시켰으며 토지의 리용률을 저하시킨 결함이 나타났다.

김 일성 동지는 평남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토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땅은 농민들의 기본 생산 수단이 아닌가. 우리 선조들이 땅을 위하여 얼마나 피흘려 싸웠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땅을 되는 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우리는 땅을 위하여 지주들과 싸웠으며 땅을 위하여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한 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전체 농민들을 이의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였던 것이다. 당이 제시한 집약화 농법도 땅을 다 리용하면서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토지는 다른 생산 수단과는 달리 옳게만 관리하면 마멸되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개량된다. 이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척박한 토지라 할지라도 다 관리하여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켜야 하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말고 있는 토지를 극력 보호하고 개량하고 귀중히 다루면서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에 폐경지, 휴경지, 공한지, 하천부지 및 간석지 등을 적극 복구 개간하며 불필요한 논'둑, 밭'둑, 도로, 교량 등을 없애고 농경지를 최대한으로 늘구어 모든 토지의 리용률을 170% 이상으로 제고하는 한편 개간된 과수 적지와 유목원을 옳게 리용하는 등으로 토지의 보호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토지를 잘 리용하여 알곡의 파종 면적을 더욱 늘구는 동시에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리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며 알곡을 중심으로 하는 농사일에 일체 로력을 돌려야 한다.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일하는 사람들이니만큼 직접적 생산자들인 조합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은 농업 생산 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 농업은 기술적 장비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농업 생산물의 원가 및 가치 구성에서 로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편 농업 생산을 다각화하고 선진적 집약 농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각종 생산 건설과 문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함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로력 문제는 매우 긴장하게 되였다.

따라서 로력 문제 해결에서 기본 고리는 로력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비생산적 로력 지출을 극도로 축감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적극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 조직과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로력을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에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수다한 로력을 랑비케 하고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

또한 관리 기구를 불필요하게 늘구며 기본 생산 부문인 농사일에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할 대신에 이러저러한 작업반(건설반, 산림반, 기계화 작업반 등)들을 조직하여 할 일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를 막론하고 로력을 고착시킴으로써 로력을 분산시키고 랑비하였으며 농번기에 각종 《써클》이요, 《체육 대회》요 하면서 적지 않은 청년 로력을 생산에서 리탈시켰다.

또한 로력 조직을 산만하게 하는 등으로도 로력의 랑비를 초래케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평남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로력 관리에서의 결함을 비판하면서 《로력 조직을 잘 하여야 한다. 로력 조직을 잘 한다는 것은 생산 조직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였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로력 계획을 주밀하게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로력 조직에 있어서는 모든 로력을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하도록 배치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조직된 각종 작업반들을 없애고 농산 작업반을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통합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관리 기구를 간소화하고 비생산 로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매개 관리 간부들과 작업반장들이 생산 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토지 관리와 로력 관리를 잘 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의 모든 력량을 금년 농사 짓는 일에 돌려야 한다.

완충기에 우리 당은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계속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축산업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육류를 공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퇴비를 더 많이 내여 토지를 개량하고 알곡 생산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초식 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되 산간 지대에서는 소, 토끼, 양 등을 주로 사육하며 평지대에서는 돼지, 젖소, 가금을 위주로 사육할 데 대한 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의 이 방침에 근거하여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공동 축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에 조합원들의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고기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금년에 모든 협동 조합들에서는 경지 정당 돼지를 1~2마리씩, 조합당 토끼고기는 10톤 이상씩 생산하며 매 농호들에서 의무적으로 비육 돼지를 2마리 이상, 토끼를 30마리 이상 각각 길러내야 한다. 육류 2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돼지, 토끼와 함께 기르기 쉽고 사료가 적게 드는 닭, 오리, 제사니 등의 사육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사료 기지가 공고화되지 못한 현 조건에서 2모작에 의한 사료 재배와 각종 자연 사료를 리용하여 공고한 사료 기지를 축성하는 동시에 공동 가축을 소집단적으로 나누어 기르게 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축산 작업반들에서는 각종 가축의 종축을 보유하여 새끼만 내우고 젖 뗀 새끼들은 농산 작업반,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에게까지 분양하여 살찌우게 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우량 품종으로 모든 가축을 대담하게 교체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사료를 모든 분쇄 수단을 동원하여 질 좋은 사료로 가공하여 줌으로써 가축의 비육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완충기 농업 부문 앞에 제시된 과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 과업이다. 기계화는 우리 나라 농업의 락후성의 마지막 근원을 뿌리 빼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며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것이다.

금년에 우리 당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업에 의거하면서 농촌에 3,000대의 뜨락또르, 3,000대의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1만 5,000대의 련결차, 9,100대의 정지기, 16만 6,000대의 제초기, 4,600대의 수확기, 1만 여대의 탈곡기, 1,000 여대의 사료 분쇄기, 11만 여대의 우차를 공급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당은 농업 기계화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데 대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 당이 내세운 방침은 동력 기계화와 함께 축력에 의거하는 중소 기계화를 병행시키며 평지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산간 지대의 기계화에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최근 1~2년 내에 평남도, 황남도, 평양시를 제 1차적으로 기계화하며 래년부터 시작하여 평북도, 황북도, 개성시, 함남도, 강원도는 2~3년 내에, 량강도, 함북도, 자강도는 3~4년 내에 각각 기계화를 완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농기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속품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각 도에서는 련결기, 시, 군에서는 제초기, 후치 등의 생산을 강화하며 리에서는 호미, 낫 등 각종 소농기구의 수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정에 맞지도 않는 각종 농기계 생산만 생각하면서 적은 것,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소농기구들의 생산과 수리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현상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 당의 기계화 수행 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편향들이였다.

또한 기계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농기계 작업소들의 선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작업에서 질을 제고하고 각종 동력 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동시에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뜨락또르 작업반 혹은 분조가 농업 협동 조합에 년간 고착되여 생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면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기구 수리반의 역할을 제고시켜 중 소 농기구의 생산과 보수 정비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영농기 전으로 호미, 낫, 후치, 각종 제초기를 비롯한 소농기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의 수리화 정책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새 건설에 착수하지 말고 이미 건설된 관개 시설들을 정비 보강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라는 당의 방침에 엄격히 립각하여 영농기 전으로 전체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완충기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이 통합된 이후 그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조합의 생산 범위는 현저히 확장되였다. 농업 생산의 집약화와 다각화에 의하여 협동 조합들의 생산 활동이 더욱 복잡하여졌으며 소비 협동 조합 상점과 신용 협동 조합이 이관되고, 보건, 문화 후생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농업 협동 조합들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또한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가까운 장래에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과업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에 비하여 관리 일’군들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어린 형편에 있다. 이것은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옳게 발휘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당은 최근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지방 당, 정권 기관 일’군들과 협동 조합 관리 간부들의 사업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각종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조합의 모든 활동에서 계획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과 공동 재산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규모가 커진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모든 활동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사회주의 경리의 우월성의 하나는 그의 계획적 성격에 있으며 사회주의적 대규모 경리는 계획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최근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당 총회를 지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자금 투자도 계획적으로 해야 하며 로력 투하와 생산과 건설도 다 계획을 짜 가지고 하여야 한다. 관리 위원회는 물론 관리 위원장과 작업반장들도 모두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경제 계획과 사업 계획들이 련관적으로 되여 있어야 하며 그래야 경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자기의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부업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상품 류통, 신용 및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옳게 관리하여 나갈 수 있으며 조합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 있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계획화는 특히 농업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연 경제적 및 기술적 제 조건과 농업 생산 자체의 특성을 잘 타산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계획화 수준은 매우 낮았다. 적지 않은 협동 조합들에서 전망 계획이 없었으며 년간 생산 계획도 몇몇 관리 일’군들이 되는 대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군 인민 위원회는 아무 검토도 없이 이런 《계획》을 비준하였다. 결과 이런 데서는 로력, 축력, 농기구, 비료 등에 대한 타산이 없는 농산 계획, 사료 보장 대책이 없는 축산 계획, 묘목 생산 대책이 없는 과수 발전 계획 등이 작성됨으로써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일부 협동 조합에서는 부문 호상 간에 아무 련계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생산에서 중심 방향을 옳게 살리지 못하고 일을 널어만 놓고

맺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생산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와 같은 조합들은 허다한 로력과 자재, 자금 등을 랑비하고 기본 생산 부문에 력량을 집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금년도 계획 작성 사업과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는 토지 및 로력의 합리적 리용, 소농기구의 보장 및 다수확 작물 재배 면적의 확장 등에 류의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을 현실성 있고 동원적인 계획 작성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도 일'군들이 광범한 당원들과 군중 속에 침투되여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객관적 현실에 적응하게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한편 당 기관들의 집체적 령도와 협의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원들에게 당의 정책과 의도를 알려 주고 그들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계획 작성 사업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문제이다.

청산리 당 총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오늘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문제는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직 우리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에도 힘든 것과 헐한 것과의 차이가 많으며 그들의 의식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점이 많은 오늘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자면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한 조합원들에게 로력일을 더 많이 평가하여 주고 분배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위반하고 로력일과는 관계 없이 년령별, 가족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분배하여 주는 평균주의적 현상, 로력일 평가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은 현상들이 있었다. 이러한 곳에서는 등급별 작업 정량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거하지 않고 작업반장이 자의 대로 로력일을 계산하여 주었다. 또한 축산 작업반에서 조합원이 관리하는 가축 두수에는 관계 없이 출근만 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로력일을 평가하여 주었으며 심지어 비생산 부문에 동원된 조합원들에게도 무원칙하게 많은 로력일을 평가하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들의 로동에 대한 열성을 저하시키고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등급별 작업 정량을 조합원 총회에서 광범히 토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밭갈이 때에는 밭가는 사람에게, 김을 맬 때에는 후치질하는 사람과 김매는 사람에게, 모내기 철에는 모를 내는 사람에게 각각 제일 많은 로력일이 평가되도록 힘든 일과 쉬운 일, 중요한 일과 차요한 일을 잘 분간하여 정량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히 작성된 등급별 작업 정량에 기초하여 도급제를 광범히 실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높이도록 자극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작용을 논다. 즉 도급제의 정확한 실시는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며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고도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물질적 우대제와 보상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 투하된 로동의 질과 량이 종국적인 생산 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정확히 표현된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만약 수확고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분배한다면 보다 낮은 수확고를 내였을 때에도 로력일만 많이 수득하면 그 조합원이 분배를 많이 받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당은 조합원들이 로동한 결과 달성된 성과에 따르는 우대제를 적용할 데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농업 협동 조합 내의 작업반들이 국가 생산 과제를 초과 달성하였을 때에는 그 작업반내 성원들과 그와 함께 작업에 참가한 농기계 작업소 운전수들에게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

전량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나눠 주게 하였다.

이렇게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물질적 장려 일면만을 보고 조합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 장래의 리익과 눈 앞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켜 볼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 우리 농민들이 협동 경리에 망라된지 오래지 않고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 잔재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근절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공동 소유에 대한 옳은 태도의 교양과 함께 새 것의 승리에 대한 사상 교양 등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혁명의 발전이 바로 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는 농촌 경리 부문 내 당 단체들과 조합 내 관리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가진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과 관리 일'군들이 전투성을 제고하여 당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나갈 줄 알며 모든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와 조합원들 앞에서 책임지는 사상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지도 일'군들은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공명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사물과 현상들을 깊이 조사 연구한 기초 우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분공을 주며 제때에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치밀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 일'군들이 높은 당성을 소유함과 함께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하며 경제 지식과 새로운 농업 과학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방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농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협동 경리의 내부 생활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농촌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완충기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

리　조　훈

당에 대한 충실성——이것은 로동당원의 당성의 기본 내용이며 중요 척도이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선 그가 당 중앙을 적극 지지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며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들의 그 어떤 주관적인 열성이나 각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업 성과에 의하여, 마음만으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 정책을 어떻게 관철하였으며 혁명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여야 한다.

레닌은 《사업에서 실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경우라야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구체적인 실천이며 그의 사업 성과이다. 실천적인 투쟁과 사업 성과를 떠난 당에 대한 충실성이란 있을 수 없다.

종파 분자들이 제거된 오늘 우리 당내에는 공개적으로 당 정책을 시비하는 자들이 없으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당원들은 누구나 당 정책을 지지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당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부단히 혁신하고 전진하여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실지로 당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일을 잘하여 당에 충실하자면 자기 사업에 대한 강한 당적 책임성과 혁명적 전개력이 있어야 하며 지식과 사업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매개 일'군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모두다 심중한 당적 임무이며 따라서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시켜 사업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와 혁명적 전개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자기가 맡은 일, 당이 준 과업을 잘 실행 못한다면 당과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는 당적 책임감이 매개 일'군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물론 자기 사업상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매개 일'군들이 고도의 창발성을 가지고 문제들을 심중히 연구하며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함으로써 일을 더 많이, 더 잘 하는 데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당 정책을 관철하여 당과 혁명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데 있다. 우리는 일이 잘못되는 데 대해서보다 일이 잘 되는 데 대해서, 당과 국가 앞에서 경제를 잘 운영하고 생산을 많이 내여 인민들에게 쌀과 고기 한 그람이라도 더 차례지도록 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하게 사업에서 책임지는 태도이며 주인다운 태도이다.

량강도 삼수군 동수 목장 토끼 사양공 장일순 동무는 10마리의 어미토끼로써 1년에 6,016마리의 토끼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방대한 토끼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마다 토끼집의 천장 우에 올라 가 구멍을 뚫고 토끼가 어떻게 밤을 지내는가를 세심히 살펴 보았으며 이에 토대하여 밤마다

4~5회씩 토끼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한 그는 이른 봄에 청애 사료가 떨어지게 되자 집안에 덕대를 매고 보리싹을 내여 잘라 먹였고 낮에는 개구리알을 주어다 먹였다. 그는 토끼의 콩시줍병을 옥수수엿, 포도당, 파 등으로 미연에 방지하였고 광자풀과 숯으로 토끼의 설사를 멨다.

이 실례에서 우리는 사업에서의 책임성이 어떤 것이며 또한 진정한 책임성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게 하는가를 보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피를 흘릴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교시하였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한 놈의 왜놈이라도 더 잡기 위하여, 한 사람의 군중이라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온갖 정열과 재능을 다 발휘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일'군들은 사업에서 주인답지 못하며 마치도 《인형》 모양으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책임성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은 당 결정과 하부 실정에 대하여 깊이 연구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 정책을 실행할 데 대하여 군중과 허심하게 의논하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약간한 성과에 자만하며 왕왕 주관주의적으로 경솔하게 문제를 처리하며 빈소리와 강조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대치하군 한다.

이러한 일'군들은 례외 없이 사업에서 주동적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들떠 다니면서 일을 실속 있게 하지 못한다.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라의 일, 인민의 일에 대하여 책임성이 부족하며 결함들에 대하여 뼈아프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남의 바람에 들떠서 못할 것도 하겠다고 큰소리 치며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며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갈 대신에 《큰》것만 쳐다 보며 이것저것 사업들을 번잡하게 널어 놓고 력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어느 하나도 끝장을 내지 못하며 무사 분주하게 뛰여 다니나 사업에서 성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러한 허식과 허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의 리익과 공명을 앞에 내세우면서 인민이 쟁취한 성과를 자기의 《총명》과 《공로》에 귀착시키며 사소한 성과에서도 자기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곤난에 부딪치면 뚫고 나가지 못하고 동요하며 주저 앉고 만다. 레닌은 《화려한 문구를 좀 적게 쓰고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좀 더 하라》고 교시하였다.

사업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하자면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모든 형편들을 상세히 연구하고 분석한 기초 우에서 주공 방향을 설정하고 력량 편성을 잘해 가지고 돌격을 조직하여야 한다.

전투에 비유해 말한다면 한 고지를 점령하라는 전투 명령을 받은 군대가 적정을 정확히 정찰하여 적아 간의 력량 관계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료해도 없이 덮어 놓고 공격만 한다면 그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할 뿐더러 전투에서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일'군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부 실정도 모르고 주공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돌격을 한다면 당 정책을 관철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는 오히려 사업에 해독을 줄 수 있다.

하부 실정을 깊이 료해하며 주공 방향을 옳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허심하게 의논하여야 한다.

혁명은 군중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군중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원래의 사업 방법이다. 우리 당 정책의 위력의 원천은 바로 그것이 《군중 속에서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데 있다》. 우리 일'군들이 항상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에게 당 정책을 해석하여 주고 혁명 과업 수행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해결 못할 난관이란 없다. 때문에 사업의 성과 여부는 일'군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군중에게서 힘을 얻으며 고도로 앙양된 군중의 로력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당적 립장도 강하고 열성도 있는 동무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심중한 과오를 범하는 례를 왕왕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의 사업 능력이 당적 임무 수행의 요구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의 대부분은 바로 이와 관련되여 있다.

사회주의는 열성 하나만으로써 건설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옳게 지도하려면 당 정책과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맑스—레닌주의로서 혁명의 매시기에 해결하여야 할 명백한 방향과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여 준다. 때문에 우리 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이에 정통한다는 것은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담보로 된다.

오늘 리론 및 실무 수준의 급속한 제고를 위하여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기본 고리의 하나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제 1차적 당적 임무이다. 학습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며 당 사업이다. 학습에 성실하지 않는 것은 당과 혁명 앞에 충실치 못한 태도의 표현이다.

현 시기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적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계급적 원쑤이며 둘째로 부르죠아 사상 잔재이며 세째로 무식이다. 모르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으며 당에 충실할 수도 없다. 전 당이 진지하게 학습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하며 항일 빨찌산들이 어떠한 어려운 전투 속에서도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의 많은 일'군들이 간고한 혁명 투쟁과 군중 공작 경험이 적으며 맑스—레닌주의 수양이 부족한 데로부터 혁명적인 사상 관점과 사업 방법을 체득함이 부족하여 응당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경제 지식을 잘 모르므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성과 있게 조직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 당에 대한 주관적인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당이 준 임무에 충실히 보답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당에 충실한 일'군이 된다는 것은 맹세나 결심으로써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사상 투쟁과 자체 수양과 인내성 있는 학습과 실지 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 관점과 사업 방법을 청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자체의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정치 리론적 및 실무적 수준을 더욱 제고한다면 그만큼 자기들에 부과된 당적 과제를 더 잘 실행할 수 있으며 그만큼 당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의 파멸적 위기와 《선거》 도박

최 윤

멸망의 막다른 골목에 처박힌 리 승만 도당은 이번 《정 부통령 선거》를 날조해냄으로써 그들의 잔명을 부지하여 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새 전쟁 준비 정책의 강화는 그들과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과의 적대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괴뢰 집단 내부에서의 대립 알륵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휘황한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정책의 영향력이 날로 더욱 남반부 인민들 속에 침투되고 있는 것과, 평화 리념이 승리하고 있는 현 국제 정세의 추이는 그들의 처지를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서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 격화의 거점의 하나로 삼고 있는 남조선에서 년초부터 일련의 도발적 군사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를 제압하며 《선거》노름판을 펼쳐 놓고 인민들의 주의를 이에 쏠리게 만들려고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 *

살인, 강도, 강간, 략탈, 방화 등 온갖 비인간적 행동을 본업으로 삼는 미제 침략군이 활개를 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더는 살아 나갈 수 없는 인간 생지옥, 무법 천지로 화하였다. 극히 최근의 한 가지 실례, 서울 역두에서 벌러진 80 여명 인민들의 사상 참사만 들고 보아도 이야말로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의 남조선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참극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남조선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으로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몹쓸 세상은 평생 처음 보았다》고 로인들은 말하고 있으며 그 누구나가 모두 《이놈의 세상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곧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리 승만 이를 반대하는 기세가 팽배되여 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북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발표한 세칭 콜론 보고에서도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반항》과 《불만》이 《젊은 세대》나 《구세대의 상당한 부분》 그리고 《군부》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폭발적인 것으로 될는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 승만 도당의 고립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지배층 내부의 반대파들은 인민들의 반 리 승만 기세를 리용하여 괴뢰 정권을 탈취하려고 추악한 싸움판을 더욱 크게 벌려 놓고 있다.

이리하여 지배층 내부의 대립 알륵도'격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의 관영 통신인 아이. 엔. 에스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의 정치가는 어느 누구도 공공연하게 리 승만의 동반자라고 지명될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동향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립장을 심히 불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악관 주인들은 이 파국적인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의 사환'군들을 번질나게 서울에 드나들게 하여 막뒤 조종을 하여 왔으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빠뜨린 것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이다.

이것은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나라의 강대성을 세계에 시위한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미제 강점하 15년 간에 걸친 리

승만 반동 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더는 론박할 여지 없이 전 세계 인민들의 면전에 폭로한 것으로 된다.

재일 동포들의 귀국이 실현된 결과 미제가 극동 침략 정책에 리용하고 있는 일본과 리 승만 도당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였다.

리 승만 도당은 또한 미국에 대하여 일본의 행동을 저지시켜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로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지난 1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과 남조선 간의 긴장 상태는 《재일 조선인들의 북조선에로의 조직적 이주로 말미암아 현재 량국 간의 관계가 단절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워싱톤의 두통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복잡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미국 지배층도 더욱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였는바 상기 콜론의 보고가 《한국의 고립과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자유 세계》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자기의 주구인 리 승만 괴뢰 정권이 수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으며 그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에 와서 미제는 아주 교묘하게 두 보수 정당을 조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리 승만의 《자유당》에 의거하면서도 또한 그와 대결하고 있는 다른 보수 《정당》인 《민주당》에 또 한 다리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을 말살해 버리려는 리 승만 《자유당》에 대하여 미제가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과 《민주당》이 《자유당》에 대항하면서도 부지해 나가고 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자기 상전의 배'속을 알아 차린 리 승만 도당은 추악하게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미제의 새 전쟁 준비 장단에 맞추어 년초부터 일련의 도발 소동에 더욱 열을 올려 왔으며 다른 한편 《민주당》이 《선거》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의 《대통령 후보》인 조 병옥이 병 치료로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서 이번 《선거》를 전격적으로 진행하여 《승리》를 쉽사리 날조해냄으로써 지리 멸렬한 《대렬》을 《수습》하고 허물어져 가는 통치 지반을 유지하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리 승만 도당은 이미 5월 중순으로 예견되였던 선거일을 야당파들의 치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개월 앞당겨 3월 15일로 공포하고 괴뢰 기구를 총 동원하여 《선거》노름에로 내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리 승만 도배가 그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처박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물론 리 승만 도당의 정치적 위기는 오늘에 와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근 년간에 이르러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은 그들의 반인민적 매국 배족 정책의 전면적 파탄과 국내외 정세의 추이와 함께, 그들이 강행한 매 《선거》 결과에서 온 지배층 내부의 세력 변동과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56년에 진행한 3대 《정 부통령 선거》 때에 리 승만 《자유당》이 파쑈 폭압과 온갖 사기 협잡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민심을 끌어 당길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리 승만은 생억지로 《대통령》 《당선》을 날조하였으나 《부통령》으로 립후보한 리 기붕은 《민주당》 소속의 장 면에게 패배 당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할 만한 아무런 지반도 갖지 못한 전 《진보당》 당수였던 조 봉암이 《평화 통일》이란 구호 하나로써 200 여만 표를 얻은 사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을 반대하는 기세가 얼마나 드높은가 하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이에 불안을 느끼게 된 리 승만 도당은 선거 이후 곧 파쑈 테로 통치를 일층 강화하여 인민들의 반대 기세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념원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현저하게 진출하게 된 야당파의 세력 확장을 봉쇄하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평화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국시 위반》이란 죄명을 들씌워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정 림시 보호 조치 법안》의 조작 흉모에서 표현되였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물론 지배층 내부에서까지 치렬한 반대가 일어나 이 악법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리 승만 도당은 다른 간계를 꾸미여 이미 조작된, 일제 시기의 치안 유지법의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 보안법》을 개악하여 이에 대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과 야당 계렬의 반대로 말미암아 질질 끌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리 승만 도당은 무엇보다도 1958년에 강행된 소위 4대 《민의원 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여기서 《승리》를 날조하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시켰다. 그들이 5.2 《선거》에서 주요하게 노린 목적은 《국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눈에 든 가시처럼 간주하고 있는 타당 출신 《부통령》에 의한 《대통령》 계승권을

박탈하기 위한 《개헌》 기도였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리 승만 《자유당》은 《국회》 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하기는 커녕 도리여 3대 《민의원》 때보다 5석이나 더 감소되였고 반면에 《민주당》은 33석을 더 얻어 이른바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회》 내 세력 배치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리 승만 《자유당》은 이번 《정 부통령 선거》에서는 만사를 제쳐 놓고 기어이 《승리》를 날조할 차비를 오래 전부터 하기 시작하였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과 야당파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고 《선거》 지반을 닦기 위한 《신 국가 보안법》 및 《지방 자치법》 등을 조작해낸 데서 나타났다.

무비의 파쑈적 악법인 《신 국가 보안법》과 《지방 자치법》의 내용이 스스로 밝혀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악법을 휘둘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물론, 야당파의 반정부 공세도 말살하며 그리고 시, 읍, 면장 등을 그들의 졸개들로 갈아 채움으로써 자기들의 지반을 마련해 놓자는 심산이였다.

이러한 폭압과 함께 리 승만 도당은 1958년 5.2 《선거》 때에 들고 나왔던 기만적 《공약 3장》의 허위성이 완전히 폭로된 지금에 와서도 선거표를 끌어 모으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기만 회유책을 철면피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금년도 괴뢰 정부 재정 예산에 《농업 금융 채권》과 《산업 금융 채권》 발행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그 기만적 본성이 드러난 《농촌 고리채 일소》이니 《중 소 기업 육성》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년금제 실시》 등의 공담을 늘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선거 때마다 념불 외우듯 의례히 떠들어 왔으나 단 한 번도 실천한 일이 없으며 또 실천할 가망도 없는 기만적 구호를 이번에 다시 들고 괴뢰 통치에 대한 인민들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조성해 보려고 어리석은 수작을 늘어 놓고 있다.

한편 선거 지반을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3월에는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5부 장관을 교체하고 새로 《선거》 내각을 조작하였으며 이해 6월 29일에 벌써 《정 부통령 립후보》 지명을 끝내였었다.

또한 《선거》 자금과 지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 《국회 의원》은 물론 기업체의 대표, 사회 교육 언론 문화계 대표들을 《자유당》 중앙 위원으로 끌어 넣으며 동시에 당원 배가 운동, 녀성 포섭 운동이란 명목으로 당세 확장에 광분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 로총》, 《대한 반공 청년단》 등 반동 단체의 개편 정비도 서둘렀다.

한편 야당의 진출을 말살하기 위하여 야당 계렬에 대한 폭압을 어느 때보다도 광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거니와 특히 신, 구파 내분으로 《선거》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수세에 빠진 《민주당》에 대한 폭압과 내부 와해 공작을 정면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민주당》 내 신파 계렬의 기관지 《경향 신문》을 폐간시킨 것을 비롯하여 지난 1월 20일 괴뢰 국회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괴뢰 경찰이 야당파들의 탈당을 관권으로 강요하며 학원에서는 아동들을 통하여 학부형들의 당 소속을 조사하고 탈당 공작을 시키고 있다.

이 사실들은 리 승만 도당이 야당파를 와해시키고 일방적인 《선거》 협잡을 날조해내기 위하여 얼마나 철면피하게 날뛰고 있는가를 잘 말하여 준다.

이러한 《자유당》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회》 내 세력 배치에는 일정한 변동이 일어났는바 현재 《자유당》은 5.2 《선거》 당시의 126석으로부터 150석으로, 《민주당》은 시초 79석에 일부 무소속 《의원》 들을 포섭하여 83석이였던 것이 현재 73석으로, 무소속은 27석으로부터 9석으로 각각 변동되였다.

이에서 리 승만 《자유당》은 종래에 기도하여 온 《개헌》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통령 후보》인 리 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소위 동일 정당 립후보제 개헌을 내걸고 《민주당》 구파와 호상 흥정하는 술책으로 나아갔다. 《자유당》은 여기에서 1석 2조를 노렸는 바 즉 그들은 개헌 기도가 설사 실패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민주당》 내 신 구파 알륵을 조장시키려는 속셈이였다. 그러나 이것이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하여 리 승만의 반대를 받아 포기되자 이번에는 조기 《선거》 강행 책동에로 나아갔다.

이 모든 사실들은 리 승만 도당이 겪고 있는 파멸적인 정치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또다시 《선거》 도박에 걸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도박이 어떠한 결과로써 끝장을 지으리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만으로써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이번 《선거》의 전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난 1월 23일에 날조된 경상북도 영일 을구와 영주 《재선거》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재선거》는 전례 없는 파쑈 폭압으로도 부족하여 《완전한 공개 투표》의 강요로 조작되였는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였든지 남조선

통신들까지도 《력사상 최악의 선거》이니 《민주주의 도살장》이니 하고 규탄의 화살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 《선거》 부정 사건을 《국회》 연단을 통하여 폭로함으로써 자기들의 지반을 확대하는 데 리용하려고 야당 계렬이 괴뢰 림시 《국회》 소집을 요구하여 나서자 《자유당》은 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류회 전술로 《국회》 본회의 성립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약을 올린 야당파는 이번에는 4대 《국회》 구성 후 단 두번밖에 출석하지 않은 현 《국회》 의장이며 《선거》에서 《부통령 립후보》로 나선 리 기붕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벼르고 있다.

한편 《재선거》 부정 사건 폭로를 계기로 하여 《반공 투쟁 위원회》, 전 《진보당》 잔존 세력 및 새로 발족한 《민족주의 민주 사회당》 등은 이른바 중간파 정당들의 련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독재 민주 수호 련맹》을 결성하였다. 이들도 《정 부통령 립후보》 지명을 결정하고 《선거》에 대결하여 나서는 동시에 보수 량 당 즉 《자유당》과 《민주당》에 대항할 신당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간파 세력의 이와 같은 대두에 대하여 《자유당》은 강압을 가하려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자기들의 《선거》 책략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기타 군소 정당들도 제가끔 《대통령》 혹은 《부통령》 후보들을 내세우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그 《대렬》을 《수습》하려고 망상하고 있으나 4분 5렬되여 가고 있을 뿐이다.

더우기 리 승만 《자유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날조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폭압과 기만 술책을 다 쓰고 있으나 이미 그들로부터 떨어져 간 민심을 도저히 끌어 당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도당이 《선거》 날조를 위하여 더욱 광란적인 폭압을 들이대여 류례 없는 사기 협잡을 꾸미리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소위 9인조 《선거》 세포라는 것을 《반》 단위로 조직하고 인민들을 벌써부터 감시하여 외부로부터의 일체 련계를 봉쇄하며 《자유당》 립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공공연히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지난 번에 있은 영일 을구, 영주 《재선거》시에 이미 감행한 바 있는 테로 단체인 《반공청년단》 단원들을 《선거구》 투표소마다에 경찰과 함께 배치할 것과 《완장 부대》를 만들어 공개 투표를 강요할 작정으로 200만 매의 《완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파 의원들의 《성토 대회》에서 폭로되고 있다.

이처럼 철면피한 협잡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선거》 날'자를 두 달이나 앞당긴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에 편승하려는 야당파의 《선거 선전》을 통하여 미제 강점과 리 승만 괴뢰 통치의 후과가 더욱 낱낱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 모든 책동은 리 승만 도당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하여 주는 동시에 막상 그들이 광란적인 폭압과 류례 없는 사기 협잡으로 《선거》 《승리》를 날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리 승만 도당의 파멸적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외에 그 어떤 결과도 가져 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지난 15년 간에 걸친 생활 체험을 통하여 괴뢰 지배층 내에서 누가 《정권》을 탈취하든지 간에 인민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선거》에도 역시 더 없는 랭담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제 강점하에서는 그 어떤 진정한 선거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진정한 선거란 오직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때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민들을 《선거》 마당에 강제로 내몰기 위하여 가해지는 리 승만 도당의 폭압은 리 승만 도당과 각 계층 인민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며 야당파들 역시 사기 협잡으로 날조된 《선거》 부정을 들고 그들의 정치 활동이 말살되였다고 또다시 반발해 나서리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도당이 그가 겪고 있는 파멸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이번 《선거》 도박에 걸고 있으나 그것은 도리여 그들 자신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리란 것이 명백하다.

남조선 인민들이 구원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물러 가게 하고 파쑈적 리 승만 통치 제도를 종식시키며 남북 조선 인민들이 한결같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것만이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활적 기로에 선 일본

김　경　현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체결——이것은 일본을 더는 헤여 나기 어려운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이 조약의 조인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계속 미국의 반 점령 상태에 남아 있게 될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는 재생되고 미국에 추종하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꾀하려는 정책이 계속 실시될 것이며, 일본의 땅 우에서 원자 참극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초래될 것이다.

새로운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일 미 군사 동맹은 오늘 미제가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극동 침략 계획의 일환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신년 벽두에 국회에서의 《호상 안전 보장 계획》에 관한 보고에서 일본이 《극동 방위의 불가결의 력량》이라고 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공공연한 발언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 군사 동맹은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장 개석 도당을 규합하여 극동에서 《반공 전선》을 형성하려던 장기간에 걸친 미제의 흉악한 책동의 산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군사 동맹의 침략적 예봉은 조선, 쏘련, 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돌려지고 있다.

일본을 파멸에로 몰아 넣는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이 군사 동맹 조작의 장본인인 미제는 《극동의 평화》니, 《안전 보장》이니, 《공동 방위》니 하는 허위와 기만에 찬 공담으로 조약의 침략적 본질을 가리워 보려고 애쓰고 있다. 오늘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치고 누가 미국 본토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극동에서 반동 주구들을 긁어 모는 것이 《방위》를 목적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적인 일 미 군사 동맹이다.

이 군사 동맹 조약이 일본을 절망적인 파국에 굴러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조약 내용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새 일 미 군사 동맹 조약 제 6조에 의하여 미국 《륙해공군이 일본 내의 시설과 지역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받고》 있으며 일본에 미군이 10년 간 더 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51년 9월 8일 쌘프랜씨스코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은 미제에 의한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강점 통치 체계에서 외형상 벗어나 형식상으로는 독립 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쌘프랜씨스코 조약 체결 후에도 미제는 일본 령토의 일부인 오끼나와 및 보닌 도서를 여전히 강점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명맥을 장악하고 있었다.

금번 새 일 미 군사 동맹에 의하여 미군은 오끼나와 및 보닌 도서의 강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일본 본토까지도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군사 기지로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미군에 일본 령토를 제공하며 미제의 일본에 대한 강점의 영구화, 미국에의 일본의 군사, 경제, 정치적 예속의 가일층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새 일 미 군사 동맹 조약 제 5조에는 《일본의 행정하에 있는 령토들에서의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은 그 자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

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헌법상 조항들과 절차에 부합되게 공동의 위업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미제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극동 침략을 위한 《공동의 위업》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직접 인입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일본 외상 후지야마도 《만약 일본 주둔 미군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본도 이를 반격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제는 2차 대전 후부터 극동 침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일본 사무라이를 믿음직한 《동맹자》로 추켜 세우기 위하여 책동하여 왔다. 미제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군사력과 그가 지난 시기 아세아 제 국을 강점해 본 경험 등을 리용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이 야망은 군사 동맹의 체결에 의하여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되였다.

군사 동맹은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과 일본의 핵 무장화를 가일층 촉진시킬 데 대한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워싱톤》 체계라고 불리우는 미국 원자 전략 체계에 일본을 인입하려고 획책하여 왔다. 그리하여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면서 일본을 원자 및 수소 무기의 기지로 전변시키며 《자위대》를 핵 무기로 무장시켜 왔다.

새 군사 동맹 체결로 말미암아 사실상 일 미 량군 공동 작전 체제가 미군의 지휘하에 형성되였으며 일본의 핵 무장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최근 미국 주간지 《내슈널 가디언》은 《개정》된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이 《효과적인 현대전을 위하여 일본을 핵 무기로 무장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공공연히 보도하였다. 또한 기시 노브스께가 워싱톤을 향하여 떠나는 날에 발표된 1960년도 일본 《방위청》의 계획에는 신형 로케트 무기를 일본에 반입할 것이 예견되였으며 이 로케트들의 일부는 핵 탄두를 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일본 정부가 이 조약의 체결을 예견하고 이미 작성하여 두었던 제 2차 군비 확장 계획은 1965년 내로 《자위대》를 완전히 유도 무기로 무장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959년 말에 미국으로부터 《사이드와인더》 유도탄 14개를 사들였고 《로케트 훈련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도꾜만의 너이지마에서 첫 유도탄 기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오늘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13만 명의 무장 경찰을 제외하고도 25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군대는 1,194대의 비행기와 404척의 함선을 가지고 있다. 핵 무기로 장비한 《자위대》의 화력은 일제가 중국 동북 침략 당시의 수 배로 강화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의 군국주의 재생을 반대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선포한 1947년의 헌법과는 반대로 재군국화의 길에 공공연히 들어 섰을 뿐만 아니라 침략적인 일 미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의 재군국화, 군사 동맹의 체결은 일본의 안전 보장을 결코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은 일본이 새 전쟁에 끌려 들어 가게 됨으로써 파국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핵 전쟁의 검은 구름이 일본을 더욱더 뒤덮기 시작하였다. 이 무시무시한 구름이 폭풍우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일본 인민은 파멸적인 핵 전쟁에 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준엄한 시기에 살고 있다.

새로운 일 미 군사 동맹 조약에는 오끼나와 및 보닌 도서들의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본 추가 기록》이 첨부되여 있다. 여기에는 《만일 이 도서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어나거나 이 도서들에 대한 무력 공격 위험이 있는 경우에 량국은 물론 <호상 협조 및 안전 보장 조약> 제 4조에 의하여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그런데 이 오끼나와 일대는 미국의 핵 무기 기지로서 미국 정부와 리 승만, 장 개석 괴뢰 정권, 비률빈 정부 간에 체결된 쌍무 군사 동맹들의 공동 방위 구역이다. 금번 조약의 조인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법적으로 이 쌍무 군사 동맹에 인입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래 전부터 만들어 내려던 《동북 아세아 동맹》(네아또)이 사실상 형성된 것이다.

새 일 미 군사 동맹은 아세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동맹인 동시에 경제적 팽창을 위한 침략 계획이기도 하다.

조약 제 2조에는 량국의 《경제적 협동》을 《고무》할 것이라고 규정되여 있다. 그들은 주로 동남 아세아로 진출함에 있어서 《경제적 협동》을 추구하고 있다.

음흉한 미제는 《경제적 협동》을 통하여 일본의 생산 기술, 동남 아세아의 값싼 로동력과 자기의 자본을 결합시켜 동남 아세아를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예속시키려는 것이다. 더우기 미제는 동남 아세아 시장에서 영국과 서부 독일을 구축함에 있어서 《경제적 협동》이란 간판 밑에 일본을 리용하려는 검은 배'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동남 아세아 시장에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영국과 서부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을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팽창할 것을 꾀하고 있다. 일본 독점체들의 이러한 내심을 모르는 바 아닌 미제는 그가 자기의 경쟁자로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모저모로 경계하고 있다.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진 동남 아세아에로의 일본의 진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였다. 일본의 독점체들은 이미 비률빈, 말라이, 비르마, 타이, 인도네시아, 남부 월남, 캄보쟈 등에 침투하였다. 최근 일본 통상성은 동남 아세아에로의 팽창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본에 《해외 경제 협조 회사》를 설치하고 이 회사에 금년 중으로 1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정부에 제의하였다.

동남 아세아에로의 일본의 경제적 팽창에 대하여 비률빈의 한 신문 《필리핀 프레스》지는 이전 《대동아 공영권》을 련상시킨다는 위구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본질을 잘 폭로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에 의한 일 미 간의 《경제적 협동》은 일본의 경제를 미국의 딸라와 군사 주문에 더욱더 얽매이게 할 것이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침략적 본질은, 1) 미국의 극동 침략 뿔럭에 일본을 가담시킴으로써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는 것이며, 2)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미국의 원자 전략 체계에 일본을 인입시키려는 것이며, 3) 일본 사무라이들을 미제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세아에서 헌병의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것이며, 4) 미제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예속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극악한 군사 동맹이 발효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클 것이다.

특히 조약상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가 도발한 핵 전쟁에 일본이 인입되는 경우에 그는 섬멸적인 보복 타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 미 군사 동맹의 체결과 관련하여 쏘련 극동 군관구 사령관 뻰꼽쓰끼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어떠한 새로운 침략도 그것은 국가로서의 일본의 존재 자체가 심각히 의문시될 그러한 파멸에로 일본을 몰아 넣을 것이다》.

반동적인 기시 내각이 택한 길은 일본에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 일본 인민은 평화, 독립, 민주주의, 중립이냐; 전쟁, 예속, 군국화, 파멸이냐의 사활적 기로에 서 있다.

일본 인민의 운명은 새로운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폐기케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 인민의 항거에 부닥친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오늘 일본 인민은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반대 항거하는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은 일본의 핵 무

장화를 반대하며 일 중 간의 국교 회복, 일 쏘 강화 조약의 체결, 오끼나와 및 보닌 도서의 일본에로의 귀속, 미군의 철거, 미 군사 기지들의 철폐 및 헌법의 옹호를 위한 투쟁과 결부되여 진행되고 있다.

반동적인 기시 내각은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개악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책동하여 왔다.

기시는 우선 이 조약의 개악을 위한 첫 책동으로서 민주주의를 말살할 목적 밑에 《경찰관 직무법》의 개정을 기도하였다.

파쑈적 조치인 《경찰관 직무법》 개악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은 전국적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일본 공산당을 선두로 31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이 련합 전선을 형성하고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군중 대회, 파업, 시위들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각계 각층 주민들이 망라되였다.

이 전 인민적 투쟁은 기시 정부로 하여금 드디여 《경찰관 직무법》 개악안을 부득이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일본 인민들은 단결하여 나아간다면 일본 반동층의 어떠한 책동도 능히 분쇄할 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을 반대하며 그 조약 자체를 폐기하기 위한 일본 인민들의 투쟁을 그의 조직성, 장기성, 완강성에 있어서 더욱 높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1959년 3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및 로동조합 총 평의회를 비롯한 134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은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 반대 협의회를 결성하고 이 매국 조약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일본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리익을 수호하느냐, 미제에 짓밟히느냐 하는 준엄한 시기에 일 미 반동 지배층의 책동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투쟁에 궐기하였다. 정당 소속, 정견, 신앙,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민족적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일본 인민은 파업, 시위, 항의 대회, 대표단 파견 등 각종 방법으로 투쟁에 나섰다.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 반대 행동 강령을 들고 일본 인민은 무려 11차에 걸쳐 전국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9년 12월 22일에 진행된 제 10차 전국 공동 투쟁의 날에는 일본 총평 및 중립계 로조 단체 조합원 450만 명이 직장 대회, 군중 집회, 시위 및 서명 수집 운동에 참가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시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에 걸고 발악하였다.

기시는 원래 1958년 12월까지에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악을 단행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일본 민주 력량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여 이것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 후 기시 정부는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집권당인 자유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통일적 보조를 이루지 못하여 거듭 실패하고 말았다.

기시는 민주 력량의 거대한 장성과 자유 민주당 내에서까지의 반대에 직면하자 부득이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악을 일시 연기하고 력량 재수습에 착수하였다.

1959년 6월에 일본에서 가장 친미적이며 반동적인 제 3차 기시 내각이 성립된 것은 력량 재수습의 서막이였다.

그 후 기시는 민주 력량에 대한 공격 준비로서 본격적으로 자유 민주당 내의 의견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당내 조정 공작》에 착수하였다.

기시는 《당내 조정 공작》에 있어서 미제와 일본 독점 부르죠아지에 의거하면서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공산 세력의 앞잡이》라고 위협적 태도를 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기시가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의 개악을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였는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기시의 어떠한 책동도 이 조약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억센 투쟁을 막을 수 없었다. 기시는 수백만 일본 인민의 강력한 항의 속에서 도망치듯이 미국에로 떠나가서 비법적으로 일 미 《호상 협조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야 말았다.

일본 인민은 매국 조약이 체결된 지난 1월 19일을 《국욕의 날》(국치일)로 맞이하였다.

이날 매국 조약을 반대 항의하는 군중 집회와 시위에는 일본 총평 및 중립계 로조 단체에 망라되여 있는 435만의 로동자들과 20만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로동자와 학생들은 집회에서 《기시 노브스께는 미국 시민이 되라》고 웨치며 국회로 하여금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이 조약을 페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할 데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는 그의 사설에서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 조약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일본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최근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정 저지 국민 회의는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개악 반대 제 12차 전국 공동 투쟁을 2월 25일에, 제 13차 전국 공동 투쟁을 3월 19일에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들의 투쟁이 오늘과 같이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 투쟁의 특징은, 1)일본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애국적 정당들이 련합 전선을 형성하고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 2)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여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3) 평화와 민주주의, 자주 독립과 중립을 위한 명백한 강령을 들고 조직적으로 완강하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4)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 성원을 받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제 특징을 가진 이 투쟁은 일본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아세아의 어느 한 지역의 원자 기지화도 단호히 반대한다

조선 인민은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무효로 선포하고 그의 페기를 위한 일본 인민의 완강한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여 굳은 련대성을 표명한다.

새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1월 20일 발표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은 전체 조선 인민의 분노를 그대로 대변한, 미제와 기시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동시에 일본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로 된다.

력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우리나라와 린접한 일본에서 군국주의 세력이 대두하며 일본 령토가 미제의 병참 기지로 전변되는 것이 조선 인민에게 어떤 엄중한 위험성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조선 전쟁 기간에 일본 령토를 조선 침략의 발판으로 침략 기지로 리용하였다. 조선을 재더미로 만든 미국 폭격기들이 일본 기지로부터 날아 왔으며, 일본 독점 자본가들이 조선 전선에 군수 물자를 생산 공급하여 미제를 협조한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미제는 지금 또다시 아세아에서 극히 위험한 불장난에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 기지를 도처에 설치하고 있으며 《세아토》와 같은 악명 높은 침략적 군사 블럭을 조작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 무기, 로케트 무기를 끌어 들이고 있다. 한편 정초부터 38선 계선에서 스토크 미 제 1군단장의 지휘하에 괴뢰군과 미군과의 련합 《원자 전쟁 대연습》을 감행하는 등으로 계속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도발로 쓰라

린 고통을 겪은 조선 인민과 아세아 인민들은 미 일 반동 지배층의 범죄적인 침략 책동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 우세》를 호언하며 마음 대로 딴 나라를 침략하거나 예속시키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 갔다.

현 시기는 《랭전》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인류 사회에서 전쟁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군비 철페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시기다. 쏘련은 최근 또다시 자기의 병력을 120만 명이나 대폭 축소하여 모든 나라 정부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침략적 군사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전쟁 광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비렬한 소행이다.

《우리는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에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며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지역도 미국 침략 군대의 원자 기지로 전변되는 것을 반대하여 모든 국가, 모든 인민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김 일성,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일본 등 아세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즉시 물러 가야 하며 그의 군사 기지는 철페되여야 하며 침략적 군사 동맹들은 페기되여야 한다.

이것은 새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열망하는 수억만 인민들의 단호한 주장이며 현 시대적 추세의 필연적 요구이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 인민의 리익을 유린하며 우리 나라와 쏘련,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의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모한 책동을 고집하여 나선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의 항일 무장 투쟁

김 석 형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확립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파산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승리의 력사적 시기를 열어 놓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 특히는 쏘련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한 이후 시기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혁명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반적 구호로써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각 민족의 근로자들의 접근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나 혹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해방 운동 및 식민지 해방 운동과 쏘베트 로씨야와의 가장 긴밀한 동맹을 실현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동맹의 형태를 각국 프로레타리아트 속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단계에 따라…규정하여야 한다》(전집, 제 31권, 166페지).

당시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구현시킨다는 것은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세계 혁명의 원천지인 쏘련에 대한 옹호와 기타 나라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20년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대중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근거지인 쏘련을 지지하자라는 구호 밑에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부에 들어 앉은 종파 분자들의 추악한 파쟁으로 말미암아 당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지 못하였었다.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구현하는 과업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비로소 해결되게 되였다.

1928년 7월에 진행된 국제 공산당 제 6차 대회는 제국주의 나라들 간의 전쟁 준비가 로골화되며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위험성이 증대됨과 관련하여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박두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과 파씨스트적 반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조직할 것, 쏘련을 옹호하여 투쟁할 것, 중국 혁명을 옹호할 것 등을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절박하고 중대한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대회는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한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술과 방법의 선택이 《단지 자국 내의 계급 투쟁의 견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국가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계급

투쟁전(戰)이라는 견지에서 규정되여야 한다》(《국제 공산당 문헌집》, 1932년 판, 810페지)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것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인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 옳은 투쟁 형태였다. 이것은 또한 조선과 만주를 발판으로 하여 쏘련을 침공하며 중국 인민 혁명을 교살하려던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됨으로써 쏘련을 옹호하고 중국 혁명을 지지하는 국제주의적 과업을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도였다. 이것은 또한 조선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전쟁의 후비로부터 국제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전화시키는 결정적인 투쟁 방침이였다.

이렇듯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조성된 정세에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맑스—레닌주의 전술의 모범이였다.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구현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의 발광적인 《반쏘 반공》 선전과 조 중 인민에 대한 악랄한 리간 반목 정책, 공산주의자 대렬 내에 잠입한 종파 분자들과 협애한 민족주의자들의 국제주의를 반대하는 각종 음모 책동 등은 커다란 난관과 애로들을 조성하였다.

특히 일제는 만주 침략을 전후하여 조 중 인민의 반일 공동 투쟁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한 민족 리간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조 중 인민 간의 민족적 리간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음모 책동을 다하였다. 일제는 동북의 중국인 속에서는 《조선 사람이 만주를 빼앗으려 한다》느니, 《조선 사람은 중국 사람의 눈 앞의 원쑤》라는 등 악선전을 감행하였으며 한편 조선 사람 속에서는 소위 《한인 자치》라는 기만적인 언사로써 중국 사람을 멸시케 하며 조 중 인민 간의 반목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종파 분자들의 범죄적 활동과 결합되여 더욱 엄중한 것으로 되였다. 종파 분자들은 일제의 민족 리간 책동에 장단을 맞추어 악랄한 해독 행위를 감행하였다. 엠엘파, 화요파 종파 분자들이 종파적 목적으로부터 조직한 1930년 5. 30 폭동은 그의 좋은 실례로 된다. 그들은 이 폭동에서 자기들의 《혁명성》을 보이려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계급, 계층별을 불문하고 습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 중 인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시켰으며 일제의 민족 리간 책동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종파 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종파 분자들은 자신을 《국제주의자》로 가장하면서 《재만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에서 손을 떼라》,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중국 혁명을 위하여서만 투쟁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등의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인민들에게 설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일부 종파 분자들은 《조선 사람은 조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혁명에 참가할 수 없다》느니, 《조선 공산주의자들은…중국 혁명에 참가할 수 없다》는 등으로 민족 배타주의 사상을 들고 나왔다.

일찌기 레닌은 말로는 자신을 《국제주의자》라고 선언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국제주의를 배반하며 각국 로동자들의 혁명적 통일의 위업을 파괴하는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외곡과의 투쟁이 없이는 혁명 위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공산주의자 대렬 내에 있은 종파 분자들의 이와 같은 각종 기회주의적 책동을 폭로 분쇄하고 극복함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하에서 조선 혁명을 지도할 수 없었다.

이 과업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량조 전선(兩條戰線) 투쟁, 종파 분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실현되였다.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의 항일 무장 투쟁

1920년대 이후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 전화된 조선 혁명은 1930년대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국제 혁명 력량과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켰다.

1930년대 이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적인 투쟁 과업의 하나로 제기된 것은 파씨즘과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은 이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 국제 혁명 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의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의 의의는 우선 그가 동방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파쑈 침략 국가인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에서 혁명 운동을 승리에로 인도한 데 있다.

동방에서 가장 악독한 침략자로 등장한 일제는 조선을 병참 기지로 하여 만주와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쏘련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였다. 일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에서 파쑈 통치를 더욱 로골화 하면서 조선 인민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일층 강화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혹심하고 일체의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이 말살된 조건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여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일제의 중국 본토 침략과 관련하여 항일 무장 투쟁은 더욱 대규모로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였으며 인민들의 반일 투쟁도 일층 확대 강화되였다. 이것은 조선과 만주에서의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 준비와 확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은 당시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하는 항일 무장 투쟁이 일제의 침략 계획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일제 놈들은 《김 일성…등 백전 련마의 거장이 지도하는》 항일 빨찌산들은 만주 《산업 개발상의 암창(癌瘡)으로 되였으며》 그는 《국책(國策) 완수상의 주요 문제》라고 하면서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지적하였다(《만주국 경찰사》, 상, 346페지). 또한 1938년에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조선 총독부 시국 대책 조사회 총회에서 조선 정무 총감은 《국경 방면에<준동>하는 <공비>는》 조선의 《사회 불안의 원인》이며 조선 《통치상의 우환》이라고 역시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에 비명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총독부 시국 대책 조사회 회의록》, 1938년, 23페지).

다음으로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의 항일 무장 투쟁의 의의는 그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중국 혁명을 지지하자!》 라는 참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하에 일제의 반쏘 무력 침공 기도와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막대한 타격을 준 데 있다.

항일 빨찌산이 진행한 수 많은 작전과 전투의 하나하나는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인 동시에 쏘련과 중국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투쟁이였다.

특히 항일 빨찌산들은 일제가 쏘련에 대한 침공을 로골적으로 시도하는 시기에 더욱더 적극적인 유격 투쟁을 전개하여 쏘련을 옹호하였다.

일제가 반쏘 전쟁의 직접적 준비로서 1938년 7~8월 2개 사단의 무력을 투입하여 연해주 남단 하싼호에 대한 무력 침범을 감행하였을 때 항일 빨찌산은 1938년 화전현 한양구 전투를 비롯하여 림강현 륙도구, 서남차 전투 등 수 많은 배후 타격 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의 쏘련 침공 기도를 파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39년 5~9월 만주 몽고 간의 국경 할 힌—골 강 지방에서 일제의 대규모적인 반쏘 무력 침공이 있었을 때에도 항일 빨찌산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의 침략

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함북 무산 지구 전투(1939년 5월), 안도현 사금구, 대사하, 류수촌 전투등은 그 중요한 전투들이였다.

이와 같이 항일 빨찌산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을 옹호하여 끝까지 싸웠다.

항일 빨찌산들은 중국 인민과의 항일 공동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중국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였으며 중국 혁명을 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국제 공산당은 중국 혁명을 지지할 것을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수차 호소하였다 그것은 중국 혁명의 승리적 발전이 동방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지위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때문이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의 승리는 세계 혁명 운동 발전에도 헤아릴 수 없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혁명에 대한 지지는 반파쑈 국제 혁명 전선의 일환이였으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임무였다.

항일 빨찌산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5개 성상 중국 인민과 함께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조 중 인민의 전투적 동맹은 조선의 해방, 괴뢰 만주국의 전복, 중국 혁명을 압살하려는 일제의 침략 전쟁 반대 등 공동의 목적과 과업에 기초하여 피로써 공고화되였으며 공동의 적 일제의 패망과 조 중 량국 인민의 해방을 촉진시켰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주체적 혁명 력량을 일층 강화하며 일체 반일 력량을 통일 전선에 결속시킴으로써 국제 반파쑈 투쟁 로선을 성과 있게 실현하였다.

파쑈 침략의 위험성이 증대됨과 관련하여 1935년 7월에 진행된 국제 공산당 제 7차 대회는 반파쑈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을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기하였다. 대회는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로동 계급의 통일을 달성하는 기초 우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을 반파쑈 인민 전선에 결속시킬 것을 호소하면서 《식민지 및 식민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반제 민족 전선의 수립에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에서와 이해 5월 무송현 동강에서 소집된 군정 간부 회의에서 국제 공산당 제 7차 대회의 로선을 실현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국제 공산당의 로선에 기초하여 일체 반일 애국 력량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 조국 광복회를 결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반파쑈 투쟁은 일제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친일 세력을 반대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조국 광복회 로선은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주되는 당면 과업인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위하여 광범한 반일 대중을 결속시킬 수 있는 현명한 것이였다.

이는 또한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의 로선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과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이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1936년 5월에 결성된 조국 광복회는 그 후 자기의 각급 조직망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중국 동북의 광범한 지역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도시들과 공장 지대에 조직되여 불과 수개월 동안에 20 여만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인사들을 자기 산하에 결속시켰다.

조국 광복회 조직의 이와 같은 급속한 확대 발전은 우리 나라에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승리적 발전을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이는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 로선의 우리 나라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의미하였다.

조국 광복회를 통한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확대 발전은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고 확대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진을 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혁명에서 계급적 력량 관계를 공산주의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

하게 조성시키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는 조선 혁명의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제 반파쑈 혁명 력량이 강화되였음을 의미한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령도된 항일 무장 투쟁은 국제 반파쑈 투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여 왔다. 이 행정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쏘련과 중국 혁명을 옹호하며 세계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위업에 막대하게 기여하였다. 이 기여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사상을 피로써 구현한 숭고한 기념비적 사실로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으며 또 영원히 빛날 것이다.

현 시기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최 병 철

최근 평양 전구 공장 초급 당 위원장 황 학련 동무를 비롯한 많은 독자들이 《현 시기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물어 왔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글을 싣는다.

독립 채산제 기업소의 활동 성과는 주로 그 기업소의 수익성에 의하여 평가된다.

기업소의 수익성이란 곧 기업소가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는 자금으로 생산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 기업소들에서 수익성을 더욱 높이자면 생산에 지출한 비용보다 제품 판매에 의하여 얻는 수입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기업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업소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 시기 특히 거대한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완충기에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것을 중심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될 제 2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훌륭한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며 공장과 발전소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자고 하면 계속 축적과 재정적 예비를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 로력과 물자를 절약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업소의 수익성이 높을 때에만 국민 소득이 더욱 빨리 장성되고 생산의 확대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투자의 원천인 축적이 더욱 급속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일체의 랑비 현상과 완강히 투쟁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가에 손실을 끼칠 것이 아니라 리익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매개 지도 일'군들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현 시기 매우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란 것을 인식하고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 채산제의 강화는 단순한 호소나 몇몇 부기 및 계획 일'군들의 사업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려면 기업소 책임 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자기 공장의 운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통달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타산을 하여 공장의 채산을 꼭꼭 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다.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우선 공장이 밑지는가, 리익이 나는가, 채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잘 따지여 공장의 채산을 맞추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공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공업 공장들에 독립 채산제가 확고히 도입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오늘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현 시기 독립 채산제의 강화를 위한 중요 방도는 무엇인가?

우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개선하며 기업소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독립 채산제는 기업소의 계획적 운영 방법이다.

그러므로 매개 기업소들에서 기술, 생산, 재정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기업을 관리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현 시기 독립 채산제의 강화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매개 공장, 기업소의 계획 과제는 가장 효과적이며 능률이 높은 새 기술과 선진적 생산 방법을 적극 도입할 것을 예견하는 기초 우에서 작성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소에서 새 기술의 도입 및 기술 발전에 대한 계획 즉 기술 발전 계획의 정확한 작성과 그의 실행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시기 기술 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로력, 있는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내려면 매개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력량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들을 옳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소의 기술 발전 계획에는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새 제품의 생산, 제품의 규격화와 질 제고 등에 대한 계획과 조직 기술적 대책 계획들이 명확히 반영되여야 하며 그것이 생산 계획, 재정 계획과 구체적으로 맞물리도록 작성되여야 한다.

그것은 기술 발전 계획이 생산 계획, 재정 계획과 구체적으로 맞물리지 못할 때에는 생산 확대와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소에서 기술 발전 계획, 생산 계획, 재정 계획을 호상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기업소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그에 기초하여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기업소의 계획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제품의 원가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 문제이다.

지난 시기 일부 기업소들 특히 일부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선진적 소비 기준들에 의거하지 않고 경험 통계적 방법으로 원가의 지출 항목들을 계획하거나 또는 기본 자재에 대하여서만 지출을 기준화하고 보조 자재, 공구, 전력 등은 기준에 립각하지 않고 주먹 치기식으로 소비하는 결함들이 발로되였다. 이것은 원가 계획화에서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하였으며 매개 지표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 통제를 강화할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생산물의 원가가 높아졌으며 원료, 자재, 전력 등의 랑비를 초래하고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게 되였다.

따라서 원가 계획은 반드시 모든 항목들이 엄격한 선진적 소비 기준에 립각하여 체계적인 원가 저하를 보장하도록 작성되여야 한다.

기업소 사업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매개 기업소들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함과 함께 도, 시, 군 계획 위원회들을 포함하는 모든 계획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특히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우리 나라 공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지도하며 지방 기업소 제품에 대한 가격 제정 사업과 기자재 공급 사업 등을 원만히 조직함으로써 모든 지방 공장들이 하루 바삐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독립 채산제 기업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소들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로력과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며 일체의 비생산적 지출을 방지하며 생산의 내부적 원천의 합리적 동원을 보장하는 것》(김 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166페지)을 의미한다.

독립 채산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개 기업소들에서 계획 규률을 엄수하며 기자재의 수공급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정확하게 수행하며 다른 기업소들에 대한 기자재 공급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실행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한 기업소에서 생산의 파동성을 극복 못하고 생산물을 계획 대로 내지 못할 때에는 곧 그와 유기적으로 련결된 다른 기업소의 생산에도 커다란 장애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소가 생산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또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수입이 감소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소들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여 위약금, 벌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결국 그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 운영에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계약에 의한 기자재 수공급 규률을 엄수하는 문제는 호상 련결된 모든 기업소들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기업소들에서는 내부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며 재산 관리와 입출고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물자의 일체 비생산적 랑비를 근절하여야 한다.

기업소 내부 질서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때에는 생산 계획의 원만한 수행이 저애되고 기업소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모든 기업소들에서 류동 자금의 리용을 개선하며 기업소들에 대한 재정 금융 기관들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극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류동 자금의 회전률은 기업소의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것은 류동 자금의 회전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적은 자금으로 보다 큰 생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당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절약하여 증산하라》는 문제도 결국 보다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내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일부 기업소에서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고 그 자금을 류용하여 류동 자금으로 리용하는 현상, 기업소 기금을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류동 자금에 편입시키는 현상, 또한 원가 계획 지표를 인위적으로 높여 비법적인 《예비》를 조성시키는 현상 등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 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소 자체의 독립 채산제에도 극히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매개 기업소들에서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수행할 때에만 국가는 체계적으로 그 기업소의 생산 확대 및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서 전반적 인민 경제의 발

전도 촉진될 수 있다.

기업소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류동 자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의 회전을 촉진시켜 기업소 사업을 개선하도록 일'군들을 자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독립 채산제의 원칙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소에 대한 은행 기관들의 원에 의한 통제를 약화시킨다.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재정 규률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류동 자금을 가지고 그의 회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더 적은 자금으로 보다 큰 생산 성과를 내도록 사업 조직을 면밀히 하여야 하며 재정 금융 기관들은 모든 기업소들이 원에 의한 통제권 내에 인입되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기업소들에 대한 통제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소들에 대한 은행 기관들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소 일'군들로 하여금 계획 규률과 재정 규률을 엄수케 하며 국가에 대한 기업소의 재정적 및 물질적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 강화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작용을 논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더욱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도는 독립 채산제의 원칙을 개별적 직장, 작업반, 나아가서는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적용하는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내부 채산제의 도입은 매개 단위, 매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며 자기 활동의 성과에 직접 개인의 리해관계를 더욱 밀접히 결부시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로력, 자재 및 화폐 자원의 합리적인 리용, 내부 예비의 완전한 동원, 생산 조직과 기술 공정의 합리화, 제품의 질 제고와 원가 저하 및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근로자들을 적극 동원시키게 하는 강력한 방도로 된다.

이렇게 내부 채산제의 도입은 현 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절약하여 증산하라》는 전투적 구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근로자들을 망라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오늘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규모가 커졌고 새 기술로 장비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건하에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생산 관리 조직의 합리화와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더 밀접히 결부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매개 단위, 매개 근로자들의 자기 활동의 결과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계산과 통제를 전제로 하는 내부 채산제의 도입으로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내부 채산제 단위들은 제품을 직접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며 기자재 공급 사업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자적인 경제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소 및 상급 기관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직장, 작업반들은 기업소의 유일한 계획, 유일한 생산 폰드, 유일한 기자재 공급 체계, 유일한 판매 계획에 립각하여 자기의 경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독립 채산제의 원칙이 기업소 내부 단위들에 도입될 때에는 일련의 특성을 띠고 구체화되게 하는 조건들이다.

따라서 매개 기업소들에서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 및 계산 체계의 확립, 내부 채산제 단위의 사업 평가 방법, 물질적 관심성 제고를 위한 제 대책, 내부 채산제 단위 호상 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도, 기자재 공급 질서 등을 포함하는 내부 채산제에로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화 사업 체계를 개선 합리화하며 자재와 로력의 지출 및 설비에 대한 기준 등을 비롯한 선진적 기술 경제적 기준들을 작성하고 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계획 가격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채산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로력, 자

재를 엄격하게 절약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있는 로력, 있는 설비 및 자재로 더 많은 생산을 내자는 데 있는만큼 내부 계획 지표들과 질서들은 설비의 효과적 리용,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여야 한다.

특히 내부 채산 단위들의 원가 계획 지표에 원자재, 연료 등의 지표와 함께 로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로임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만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로동 규률의 강화를 위하여 더 큰 힘을 경주하게 할 것이며 설비의 정비, 점검 및 예방 보수 사업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게 하고 설비 애호를 위한 군중적인 투쟁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산 체계를 매개 직장, 작업반들의 생산 기술 공정의 특성에 알맞게 조직하며 소비 기준을 비롯한 모든 기준을 똑똑히 세워 계산 조직을 정확히 한 기초 우에서 공장 부기실의 역할을 제고하고 내부 채산 단위들의 사업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채산제를 성과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내부 채산제 단위들의 호상 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제정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개 내부 채산 단위들의 사업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줄 수 없으며 그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 채산제 직장 간의 호상 관계는 매개 채산 단위들의 책임성의 원칙과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설정하되 특히 그들 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며 원자재, 반제품, 완성품의 인수 인도 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양 고무 공장에서는 직장 호상 간의 자재의 인수 인도 사업을 약정된 계약에 의하여 매일 호상 립회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에 예견된 기술 조건을 위반하여 자재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제품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케 하는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매개 직장, 작업반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고 있다.

또한 이 공장에서는 우수한 직장, 작업반, 개인들에 대한 상금 제도를 내부 채산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고 있다.

현 시기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

지도 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당 정책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겠는가를 항상 연구하며 독립 채산제를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의 요구에 충실하게 대중의 창조적 로력과 집체적 지혜를 능숙하게 조직 동원할 줄 아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이 있어야만 독립 채산제의 강화는 보장될 수 있다.

독립 채산제의 강화를 위한 투쟁——이것은 무엇보다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다.

지도 일'군들이 통계 자료와 부기 발란스를 따질 줄 모르고서는 기업소의 채산을 맞추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 수 없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과 사회주의 기업 관리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연구하고 자기 기업소, 자기 부문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 모든 기업소들이 높은 수익성을 내는 기업소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기업소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잡지 《력사 과학》의 질을 더욱 높이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3차 대회 보고에서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와 그 선전이 당 사상 사업에서 노는 중요한 의의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를 신중히 연구하며, 우리 나라 혁명 투쟁의 경험과 교훈으로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관한 일체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우리 혁명 운동의 력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잡지 《력사 과학》은 당 대회가 우리 나라 력사 연구 및 편찬 사업 앞에 제기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잡지 《력사 과학》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혁명 전통 그리고 해방 후 북반부에서 일어난 력사적 변혁들과 남반부 인민들이 투쟁해 온 길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일련의 우수한 론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년간 《력사 과학》은 과거 반당 종파 분자들이 력사 학계 특히 근세 및 최근세사 부문에 끼친 악독한 사상 여독과 력사의 외곡을 극복 청산하는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고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립각한 일련의 우수한 론문들을 게재하는 면에서도 이전보다 현저히 전진하였다.

그러나 《력사 과학》은 아직도 일련의 중요한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잡지 《력사 과학》의 질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쳐야 할 몇가지 결함들에 대해서 주로 지적하려 한다.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의 철저한 결합을 위하여

력사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결합하는 문제이다.

력사 연구에서 당성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력사나 오늘의 력사를 막론하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립장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해 관계의 견지에서, 당의 리익의 견지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확고히 립각하여 력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평가,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성 원칙은 력사 서술에서 온갖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각종 수정주의적, 종파주의적 경향과 부르죠아 객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서술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 당 정책과 로선에 철저히 의거할 것을 요구한다.

력사주의적 원칙이란, 매개 력사적 사변과 현상들을 그 당시의 사회 형편과 그 시대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것을 력사적인 발생과 발전의 견지에서 서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력사주의적 원칙은 력사적 사실에 대한 온갖 외곡, 력사적 사실들을 그것이 발생된 구체적인 력사적 제 조건 밖에서 고립적으로 고찰하는 것,

그리고 력사의 도식화와 현대화, 비속화 등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호상 밀접히 결합되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 있어서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결합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옳게 해명하는 것이다. 과거 력사 학계 분야에 기여 들었던 종파 분자들과 그들의 추종 분자들은 혁명 전통을 외곡하며 심지어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것을 이러저러한 구실로 방해, 억제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력사 과학》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 당 1956년 8월 전원 회의 이전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 전통에 관한 론문은 《력사 과학》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종파 분자가 외곡한 것을 제외한다면 창간호부터 1959년 4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 혁명 전통과 관련된 론문은 5건밖에 발표되지 못하였는 데 그 중 4건은 1959년에 와서야 비로소 게재되였으며 심지어 195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잡지가 혁명 전통 취급에서 1959년도에 들어 오면서 일정한 개변을 가져 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에 1958년까지는 극히 등한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 시기 《력사 과학》에 실린 혁명 전통에 관한 일부 론문들은 서술에서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의 관철이 미약하였다. 실례로 1959년 3호에 실린 론문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동만 지방에서의 조선 혁명 근거지의 창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론문에서는 동만 지방에서의 조선 혁명 근거지 창설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명하려는 긍정적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유격 근거지에 대한 다른 많은 해명과 자료를 주면서도 유격 근거지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축성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유격 근거지 창설의 필요성, 그 역할에 대하여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와 아무런 결부도 없이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김 정숙 동무의 론문 《1934～1937년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1958년 3호)에서는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이 엄중히 위반되여 서술되였다. 여기서 필자는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력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게 과대 평가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외곡하여 묘사하였다. 명천 농조 운동에 대한 과장은 1958년 6호에 실린 고 정수 동무의 론문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조선에서의 농민 운동의 새로운 앙양》에서도 되풀이되였다.

또한 고 정수 동무의 론문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반일 농민 운동의 새로운 앙양》(1958년 2호)에서는 1930년 5월 30일 폭동을 《조선인 농민을 기본 력량으로 한 중국 반일 군중들과의 첫 대중적 공동 투쟁…》(53폐지)이라고 그릇되게 서술하였다. 5월 30일 폭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력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실제상 5월 30일 폭동에 있어서 종파 분자들은 자기의 출세주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악용하면서 좌경 모험주의적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당성 원칙 관철에서의 부족점은 일부 권두언에서도 표현되였다. 실례로 1958년 2호 《우리 력사 학계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과 상반되는 일부 정식화를 주고 있다. 물론 필자는 1920년대 이래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기여 들었던 최 창익 도당을 비롯한 각종 종파 집단이 청산됨으로써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가 당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는 것을 주려고 시도하면서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종파 여독과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6폐지)라고 그릇되게 서술하였다. 또한 《우리 력사 학계의 통일 단결》(방점은 인용자)이라고 한 권두언의 제목 자체도 심중하게 설정되지는 못하였다. 오늘 지방주의, 가족주의적 표현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조건에서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은 어떤 《학계의 통일》이 아니라 전 당적 통일이며 력사 학계 내에서 종파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강한 사상 투쟁이다.

력사 연구에서 당성 원칙의 관철은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주체를 확립하는 것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력사 과학》에 실린 모든 론문들은 바로 우리 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아무리 고대사에 관한 서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조국의 찬란한 과거 력사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주체 확립에서 잡지 앞에 우선 주요하게 나서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에서 가장 긴요한 문제에 대하여, 인민 대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조국의 생동한 현실에 대하여 제때에 해명해 주는 문제이다.

물론 최근 1～2년 간 《력사 과학》은 근세 이후 론문들을 종전보다 퍽 많이 발표함으로써 현실 문제 취급에 있어 일정하게 개선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력사 과학》은 혁명 발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당이 어떻게 주체 있게 해결했는가를 리론적으로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현실에 능숙하게 독창적으로 적용한 여러 문제들, 례하면 조국이 분렬된 조건하에서의 혁명 발전에 대한 당의 로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대중의 높은 의식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진행한 창조적 사업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 발생 발전에 관한 문제, 공산주의 교양에서의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의 호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 특징 등 실로 수다한 문제들을 력사가들과 철학가들이 주체 있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 문제를 주체 있게 해명하려면 매개 문제 취급에서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면서도 우리 나라에 고유한 특성들을 명백히 살려야 한다.

만약 우리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론문을 쓸 때에도 우리 혁명의 간고성, 과거 우리 나라의 력사적 락후성, 인민의 높은 의식성을 반영한 부단 혁명 사상으로의 교양이나 혹은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으로의 교양과 같은 것들이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교양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고 김 일성 동지가 공산주의 교양에서 제기한 일련의 문제들의 그 하나하나가 어떤 고유한 내용과 특징들을 가지는가 등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글로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글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력사 과학》의 많은 론문들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력사 과학》이 1958년 1호로부터 1959년 4호에 이르는 기간에 근세 및 최근세사 부문의 론문을 그전보다 많이 실었으나 당이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했는가를 보여 주려고 시도한 론문은 그 기간에 2건을 취급한 데 불과하였다. 그것도 과학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인민들의 천리마 운동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론증한 론문은 전혀 취급되지 않았다.

주체성이 부족한 다른 한 실례는 1958년 1～2호에 실린 론문 《일본 자본주의의 조선 침략과 조 중 관계》에서도 찾아 보게 된다. 비록 이 론문이 외교 관계에 대한 서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조선 정세의 내부적인 력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되였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를 위주로 하여 조선 문제의 력사적 사건이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성의 결여는 필자로

하여금 당시의 력사적 사실을 옳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결국 그는 만청 봉건 통치 집단의 조선 정부에 대한 태도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과대시하였다.

《력사 과학》이 사상 전선에서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놀려면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무게 있는 과학 론문들을 계통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남조선에서 퍼뜨리고 있는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 부르죠아 철학 사상을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력사 과학》은 창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는 론문을 한 전밖에 실리지 못하였다. 특히 '남조선 정치 정세, 평화적 조국 통일, 남조선의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대한 과학 론문이 1958년 1호부터 작년 4호에 이르는 기간에 전혀 없다는 사실은 《력사 과학》 편집 일'군들이 특히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결함의 하나이다. 《력사 과학》은 남조선의 이데올로기, 력사, 철학, 계급 관계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분석과 평가를 응당 계통적으로 주었어야 할 것이였다.

력사 연구에 있어서 력사주의적 원칙이 철저히 견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력사 서술이 과학적인 사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확정된 사료에 기초하지 않는 력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은 서술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적 오유에 빠지기 쉽다. 우리 당의 옳은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적 문화 유산들특히 최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에 관한 사료 수집 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때문에 이미 수집된 사료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일반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에 대하여 일반적 문구로만 강조하고 그의 내용을 사료 분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 제 조건과 련관시켜 해명하지 않는다면 당성 원칙에 력사주의적 원칙을 밀접히 결합시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력사 과학》은 이미 수집된 중요 사료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론문들을 제때에 주지 못하였다.

학술 잡지로서의 《력사 과학》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살려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출판물의 결함에 대하여 《…우리의 신문과 잡지들은 각각 자기들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일반적이며 형식적 론설…들을 게재하고 있다》(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라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지적은 잡지 《력사 과학》에도 역시 해당된다. 《력사 과학》은 철학 및 력사 학계의 유일한 학술—리론 잡지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력사 과학》에 실린 적지 않은 론문들은 다른 비학술 잡지와 거의 비슷한 일반 리론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과학 론문으로서의 특성이 미약하였다.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일반 력사 교과서나 통속적인 력사 서적과 같이 일반적 해설 론문으로 흐른 것도 없지 않았다. 과학 잡지에서의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의 결합은 어디까지나 과학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과학적 문제들을 창발적으로 제기했거나 그것을 새롭게 해명함이 부족한 것은 특히 근세 및 최근세사 분야에서 더욱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 발생 발전과 그 특징에 관한 문제, 부르죠아 민주주의 사상의 발생과 부르죠아 민주주의 운동에 관한 문제, 일제 통치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와 그 운동에 관한 문제,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에 관한 문제,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에 대한 력사적 개괄,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투쟁과 평화적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리론적 분석 그리고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창조적 성과들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는 것 등 《력사 과학》이 근세 및 최근세사 분야에서 새로이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은 실로 수다하다.

특히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천리마의 속도로 변화 발전하면서 사회 과학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부단히 내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 과학자들에게 과학 연구의 풍부한 원천들과 새로운 측면들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론문들은 생생한 력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에 있어서 학술 론문으로서의 과학 수준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 실례의 하나로 공화국 창건 10주년 특집호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응당 공화국 창건 이래 10년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이룩된 제반 력사적 변혁들과 성과들이 과학 문제로서 해명되였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론문들의 많은 부분이 그 내용의 깊이, 체계, 취급하는 범위가 다른 일반 론문이나 기타 일반 정치 서적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류사하였다.

례컨대 론문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문화 혁명의 과업》에서는 어떤 과학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일반 통속 론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일반적 내용을 광범하게 취급하였다. 론문의 제 1장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문화 혁명》의 첫째 소제목과 둘째 소제목에서 필자는 《ㄱ, 문화와 문화 혁명의 일반 개념》, 《ㄴ, 사회주의 문화 혁명의 과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아무런 결부도 없이 일반론을 많은 지면에 걸쳐 썼으며, 《ㄷ,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의 수행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이라는 마지막 소제목에서는 평범하고 단순한 력사적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제 1장에서 필자는 제 1장 제목의 본질적 요구와 적지 않게 동떨어진 내용들을 장황하게 주었을 뿐, 문화 혁명이 어째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성 부분으로 되여야 하며 또 되고 있는가를 과학적인 론증으로서 해명해 주지 못하였다. 제 2장 《현 시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 제기되는 주요 과업》에서 필자는 문화 혁명의 과업을 아무런 문제성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전반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 서술조차도 과학적인 문제 해명이라기보다 마치도 일반적인 대중 신문이나 잡지에서 과업을 인민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과학 론문이 이와 같이 되여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론문은 다른 일반 정치 론설에서 이미 수다하게 언급된 것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았다. 기타 《우리 나라에서 새 형태의 인민 정권 창설과 그 성격》,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주권이다》 등의 론문들도 과학 리론 수준이 낮았다.

과학 론문으로서의 심도가 얕은 것은 1959년 1호의 공산주의 교양에 관한 일부 론문들이다. 물론 필자 집단을 동원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취급한 것은 극히 좋은 것이였고, 최 응철 동무의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무장하자》를 위시하여 일부 비교적 우수한 론문들도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론문이 과학 론문으로서의 심도가 매우 얕고 리론적 전개력이 미약하였다. 그 중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새 것의 불가극복성의 사상으로의 교양》이라는 론문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사상 교양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특성,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 간의 대비, 남북 조선의 대비를 렬거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론문에서는 어디까지나 사상 교양 문제를 취급한 것만큼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며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고 론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런 것이 이 론문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상 교양 문제에 대한 과학 론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과학적 해명을 위한 새로운 문제들을 내놓지도 못하였다. 이와 류사한 것은 일부 다른 론문들에도 있다.

과학 발전의 모든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새로운 과학적인 문제의 해명은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광범한 군중적 론쟁과 토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력사가들과 철학가들을 발동시켜 과학 론쟁의 분위기를 만들며 광범하고 활발한 토론을 조직 추동하는 것은 《력사 과학》이 학술 잡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극히 필요하다. 활발한 과학적 론쟁은 미해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력사 과학》은 1958년 1호로부터 1959년 4호까지 지상에서의 호상 간 론쟁을 토론으로 련재한 것이 한 건도 없으며 토론 형식을 띠고 발표된 것도 많지 못하다. 례컨대 1958년 3호로부터 1959년 2호까지의 1년 동안에는 토론 형식으로 나온 론문이 전혀 없고 그 외의 기간에 실린 것도 적지 않은 경우에 이른바 《무난한》 것이 실렸을 뿐이다.

특히 해방 후 우리 인민의 생활이 새로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론쟁이 매우 미약하였다. 195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방 후 시기 문제에 관한 토론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발생 발전의 특수성》 (1958년 1호)을 한 건 발표한 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론쟁과 토론이 미약한 결과 지금까지 오래 동안 끌고만 오던 론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도 반단에 그치고 만 것이 적지 않다.

이것은 력사가, 철학가들 자신의 과학 연구의 결함과 함께 《력사 과학》이 학술 잡지의 특징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을 말해 준다.

전반적으로 보아 지난 시기 《력사 과학》에서 취급한 제마들 중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일반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주 많았다. 특히 근세, 최근세사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물론 일반적 제마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의 범위가 너무나 큰 한 개 론문으로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다. 전면적인 문제를 다 언급하지 않아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한 개 문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론증하여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간다면 그 론문은 과학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기간 《력사 과학》에 실린 일부 론문들에서는 술어 사용에서의 과학적 엄밀성의 부족, 정식화의 부정확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실례로 《조선에서 혁명 정권의 정치적 형태를 인민 정부 즉 인민 공화국의 형태라고…》 (1958년 4호 15페지), 《착취 제도의 세계적 모범인 우리 공화국 남반부》(1959년 1호 6페지, 방점은 인용자)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자들이 리해하기 힘든 말들이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바 우리 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한문 그대로 《<千斤一髮之格>으로 극히 위급한 조선 현실》(1958년 1호 15페지)이라고 한 것이라든가 《이양선(異樣船)이 출자(出姿)하였다》 (1958년 6호 37페지)라고 한 것 등 독자들에게 매우 불편을 주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3차 대회의 보고에서 출판물의 《문체의 간결, 정확, 명료성을 보장》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것은 과학 잡지에도 해당된다. 일부 론문에서는 언어 정화의 측면에서 보면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문법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문장들도 가끔 찾아 보게 된다. 이것은 물론 편집 집단에도 책임이 있지만 문장에 대하여 일부 필자 자신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는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함들은 잡지 《력사 과학》이 지난 시기 전반적으로 보아 력사 학계의 과학 연구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1~2년 간 《력사 과학》은 종전에 비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사 과학》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상의 모든 결함들을 결정적으로 퇴치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력사학과 철학 발전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을 것이다.

잡지 《력사 과학》은 력사학 및 철학 발전을 추진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레닌은, 출판물이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로 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과학 잡지에서도 마찬가지다.

《력사 과학》은 력사학 및 철학 발전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력사 과학》은 력사가들과 철학가들의 과학 성과를 지상에 제때에 반영시키며 과학 연구의 열의를 가일층 추동하며 그들의 온갖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발양시킴으로써 그들의 창조적인 출연의 진정한 연단이 되여야 한다.

세계 선진 과학을 머지 않은 장래에 따라잡을 데 대한 우리 당 제 3차 대회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력사 과학》이 발표하는 론문의 질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 과학은 이를 위한 일정한 토대를 닦고 있으며 당은 계속 력사학, 철학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때문에 《력사 과학》은 과학 일'군들 속에서 최대한의 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질 좋은 과학 론문을 제때에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편집 위원회와 편집 집단의 옳은 조직 사업이 필요하다.

《력사 과학》에 실리는 론문들이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결합하며 높은 과학 리론 수준을 견지하고 잡지의 질을 한층 개선하려면 《력사 과학》 편집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만약 편집 위원회가 잡지 운영과 발표되는 매개 론문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였더라면 일부 론문들에서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이 위반 되거나 과학성이 극히 미약한 현상은 발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력사 과학》이 우리 나라 력사학 및 철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노는 역할을 제고시키며 잡지의 질을 더욱 높이려면 자기 지면을 통하여 광범한 토론과 건전한 과학 론쟁의 분위기를 만들며 비판과 호상 비판, 창조적 경쟁 등으로 과학 생활을 더욱더 활기 띠게 하도록 자극 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 발전은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아무런 난관과 애로도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겁내지 말고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데 있다. 과학에서도 온갖 신비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 버려야 한다.

《력사 과학》은 토론에 훨씬 광범한 학자들을 망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력사 과학》에 출연한 토론자들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고 있었다. 이것은 기타 론문의 필자 선택에서도 동일하였다.

《력사 과학》은 이미 실린 론문들 중에서 결함이 발로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시정 론문을 제때에 내여야 한다. 명천 농조 운동을 과장한 김 정숙 동무의 론문이 발표되여 1년이 경과된 후에야 시정 론문이 나간 현상은 앞으로 더는 되풀이되여서는 안 된다.

호상 토론된 문제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제때에 해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해방 후 15년 간 과학 발전의 성과가 축적된 오늘 과거 오래 동안 비교적 활발히 토론되였던 론쟁 문제들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응당 볼 수 있다. 과학에서의 일정한 결론은 그 결론에 립각하여 과학자들이 보다 세분된 문제를 더욱 자신 있게 더욱 구체적으로 과학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력사 과학》 편집 위원회와 편집국은 비록 사소한 주관주의나 편집에서의 낡은 틀, 낡은 경험주의라도 그것을 박차고 과학 론문의 다양성, 서술 방식과 형식의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 동일한 서술 형식과 격식의 틀을 마사 버려야 한다.

《력사 과학》은 과학 부문의 적지 않은 독자들, 많은 과학 기관들을 대상하고 있다. 때문에 《력사 과학》은 외국 및 우리 나라 학계 소식을 정상적으로 주는 동시에 력사 및 철학

연구 분야에서 과학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과학 연구의 경험을 호상 교환하며 력사 및 철학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는 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방조자가 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서평을 옳게 그리고 제때에 조직하는 것은 극히 필요하다.

1958년 9월 전국 과학 및 고등 교육 부문 당원 협의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력사 과학》은 자기의 많은 력량을 근세 이후 특히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우리 당 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계속 돌려야 할 것이다.

《력사 과학》이 력사 연구에서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결합하며 과학 잡지로서의 질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요하게는 력사가들과 철학가들 자신의 역할에 달려 있다. 잡지가 최근 시기만 하여도 《력사 학계의 혁신을 위하여》, 《력사 과학 부문에서 질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문제》와 기타 여러 권두언들에서 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듭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력사 과학》에 실린 론문들이 아직 우리 당이 요구하는 기대에 원만히 응하지 못하는 것은 편집 위원회나 편집국의 잘못만도 아니다. 우선 력사가들과 철학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과학 론문을 잡지에 투고한 적이 얼마나 되였던가? 론문의 높은 사상성과 과학성,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의 철저한 준수는 무엇보다도 우선 력사가들과 철학가 자신이 과학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적극적이며 창조적인가에 달려 있다.

매개 력사가들과 철학가들이 당적 사상 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의 연구 사업을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현실과 밀접히 련결시켜 과학 사업을 보다 성과 있게 진행하며 《력사 과학》에 보다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만 잡지의 질은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창조적 노력과 《력사 과학》 편집 위원회와 편집 집단의 노력이 호상 밀접히 결합된다면 당이 《력사 과학》 앞에 부과한 중요한 임무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매개 과학 및 고등 교육 기관과 해당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의 많은 방조가 필요하다.

정　　　정

《근로자》 1 호 25페지의 표에서 1959년 수'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함

	오	정
《A》 그루빠	2,019	1,992
《Б》 그루빠	1,713	1,717
공업 총 생산액	1,906	1,857

근로자　제 2호　(루계 171호)

편집 위원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60년 2월 15일　　인　 쇄•1960년 2월 10일

ㄱ—31067　　값 50 전

서 적 안 내

레닌 탄생 90주년 기념 출판

레닌 전집 제 33권

4×6판, 예정 폐지 740폐지, 예정 값 1원 50전,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3월.

본 권에는 1921년 8월 16일부터 1923년 3월 2일까지의 레닌의 론문, 보고, 연설 및 편지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저작들에서 레닌은 신 경제 정책의 실시와 인민 경제의 복구를 총화하였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가능성과 그 계획들을 서술하였다.

본 권에 수록된 론문들에서는 당 건설 문제, 국가 기관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국제 로동 운동,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세계 혁명 발전의 전망 등 중요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본 권은 레닌 전집 제 4판에서 레닌의 기본 저작들을 수록한 마지막 책이다.

레닌 전집 제 34권

4×6판, 예정 폐지 570폐지, 예정 값 1원 20전,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3월.

본권에는 레닌이 1895년 11월~1911년 11월에 쓴 편지가 들어 있다.

1895년~1901년의 편지는 로씨야에서의 사회 민주 로동당 창건을 위한 레닌의 활동과 인민파, 《합법적 맑스주의》, 《경제주의》를 반대하는 레닌의 투쟁을 보여 주며 레닌의 《이쓰크라》 발간 계획의 실현과 《이쓰크라》에 대한 레닌의 지도적 역할을 보여 준다.

본 권의 대부분의 편지는 1901년~1904년에 쓴 것인데 쁘레하노브에게 보낸 많은 편지는 프로레타리아 당의 혁명적 강령 작성 문제를 론한 것이다. 각 지방 위원회와 제 2차 당 대회 소집 조직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레닌은 《이쓰크라》의 강령적 및 조직적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똘리삔 반동 시기의 편지는 청산파, 트로쯔끼주의, 소환파, 조정파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혁명적 맑스주의 당의 리론적 기초의 외곡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여 준다.

이 책에는 고리끼에게 보낸 많은 편지들이 들어 있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2월